

『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

원전강독 참고자료

담당교수: 오석원(吳錫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명예교수)

목차

1. 주역의 이해.....	1
2. 하도와 낙서.....	7
3. 선천역과 후천역.....	10
4. 8괘의 내용.....	13
5. 주역의 구덕괘.....	14
6. 실시법(점치는 방법).....	15
7. 괘의 변화를 보는 방법.....	18
8. 괘 변화를 보는 방법의 실례.....	20
9. 역설강령의 요지.....	21
10. (보충자료1) 홍범(洪範).....	29
11. (보충자료2) 구덕삼진괘(九德三陳卦).....	34
12. (보충자료3) 팔괘납갑도(八卦納甲圖)	36
13. (보충자료4) 여러 도설(圖說)	43
①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44
② 태극하도(太極河圖).....	45
③ 하락총백도(河洛總百圖).....	46
④ 복희팔괘도(伏羲八卦圖)와 문왕팔괘도(文王八卦圖).....	47
⑤ 복희육십사괘차서도(伏羲六十四卦次序圖).....	48
⑥ 복희육십사괘방위도(伏羲六十四卦方位圖).....	49
⑦ 경세육십사수도도(經世六十四數圖).....	50
⑧ 일정팔회도(一貞八悔圖).....	51
⑨ 삼십육궁도(36宮圖).....	52
⑩ 이십사절기방위도(24節氣方位圖).....	53
⑪ 주천화후도(周天火候圖).....	54
⑫ 서괘십팔절도(序卦十八節圖).....	55
⑬ 괘변도(卦變圖).....	57
⑭ 64괘의 순서와 명칭.....	58

1. 주역(周易)의 이해

1. 주역(周易)의 명칭: 주(周)나라의 역(易)

예) 「周易者,言易道周善,无所不備」(乾爲首)

*〈周나라 이전의 역〉(구체적 내용은 不傳)

예) 「大卜掌三兆之法···,一曰連山,二曰歸藏,三曰周易」

(『周禮』,春官,「宗伯」下)

*하(夏)나라의 역: 연산역(連山易), 신농시대(神農氏)의 역

예) 「連山者,象山之出雲連連之不絕」(艮爲首)(上同,孔穎達說)

*은(殷)나라의 역: 귀장역(歸藏易), 황제시대(黃帝)의 역

예) 「歸藏者,萬物莫不歸藏於其中」(坤爲首)(上同,孔穎達說)

2. 역(易)의 명칭

①일월설(日月說): 해(陽)와 달(陰)의 변화 (道家 解釋)

②석역설(蜥易說): 도마뱀(쇠퇴한龍, 하루 12번 변화)의 상형(許慎, 『說文解字』)

3. 역(易)의 의미

①변역(變易): 모든 존재의 무한한 변화

예)變化性, 陰陽, 所當然, 用, 流星

②불역(不易): 변화속의 불변의 원리

예)不變性, 太極, 所以然, 體, 北極星

③이간(易簡): 용이함과 간단함

예) 「乾以易知,坤以簡能,易則易知,簡則易從,易知則有親,,易從則有功,有親則可久,有功則可大,可久則賢人之德,可大則賢人之業,易簡而天下之理得矣」(繫辭上,1章)

4. 역(易)의 성립과정: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①하도(河圖): 복희씨(伏羲氏) 때 황하(黃河)에서 8척(尺)의 용마(龍馬), 선천역(先天易), 체(體), 십수상(十數象), 음양의 조화, 음양상보(陰陽相補)의 원리, 1과6(南), 2와7(北), 3과8(東), 4와9(西), 5와

10(中央)의 위치. 10(無極)이 5(皇極)를 둘러싸고 이중(二重)의 음양조화로 천하가 태평한 시대의 상징.

②낙서(洛書): 우왕(禹王) 치수(治水) 때 낙수(洛水)에서의 거북(龜), 후천역(後天易), 용(用), 구궁수(九宮數), 음양의 부조화, 억음존양(抑陰尊陽)의 원리. 5(中央)를 중심으로 1(北)과 9(南), 3(東)과 7(西)이 마주 보며, 8(東北), 6(西北), 2(西南), 4(東南)이 모서리에 위치. 10(無極)이 없으므로 본체가 없어 작용을 못하고, 오직 4개의 음(維陰, 2·4·6·8)을 본체로 하고 4개의 양(正陽, 1·3·7·9)을 작용으로 함으로써 체방용도(體方用圖)의 역기능을 자아내어 외강내유(外強內柔)의 모습이므로 억음존양(抑陰尊陽)의 원리로 다스리는 시대의 상징. 좌선상극(左旋相剋: 土克水, 水克火, 火克金, 金克木, 木克土의 순서)의 형상. (하도에 비하여 1과 3의 양(陽)자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2와 4의 음(陰)자리는 바뀌었음. 즉 4·9와 2·7이 남서(南西)로 역행(逆行)과 전위(轉位)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음), 무왕(武王)때의 홍범구주(洪範九疇)의 사상으로 발전됨.

예) 「天生神物, 聖人則之, 天地變化, 聖人效之, 天垂象, 見吉凶, 聖人象之,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 (繫辭上, 11章) (聖人作易之所由也)

5. 역(易)의 변천과정

- ①복희씨(伏羲氏)의 역: 팔괘(八卦)
- ②문왕(文王)의 역: 육십사괘(六十四卦), 괘사(卦辭), 단사(象辭)
- ③주공(周公)의 역: 384효(三八四爻), 효사(爻辭)
- ④공자(孔子)의 역: 십익(十翼)
- ⑤위(魏)나라 왕필(王弼)의 『왕필역(王弼易)』
- ⑥송(宋)나라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
- ⑦명(明)나라 래씨역(來氏易, 來易)
- ⑧청(淸)나라 강희제(康熙帝)의 『주역절중(周易折中)』

6. 공자의 십익(十翼)

- ①단전(象傳)(上下): 64괘의 각 괘와 효의 특성과 의미를 밝힘

- ②상전(象傳)(上下): 64괘의 각 괘와 효의 형상에 담긴 의미를 밝힘
- ④계사전(繫辭傳)(上下각12장): 주역 체제의 구성과 원리 및 복서(卜筮)와 철학적 윤리적 내용을 설명
- ④문언전(文言傳): 건괘(乾卦)와 곤괘(坤卦)의 괘사(卦辭) 효사(爻辭)를 부연설명
- ⑤설괘전(說卦傳, 11장): 8괘에 대한 총괄적 내용과 64괘로의 변화 과정을 설명
- ⑥서괘전(序卦傳): 64괘의 배열순서와 의미를 설명
- ⑦잡괘전(雜卦傳): 64괘를 두 괘씩 모아서 서로 비교하여 설명

7.괘(卦)와 효(爻)의 성립과 명칭

- ①소성괘(小成卦, 單卦, 八卦): 3개의 효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생(生)→장(長)→성(成)이 됨. 맨 아래는 땅(地)으로 처지(處地)와 형세(形勢)를 상징이며, 중간은 사람(人)으로 주재자의 능력을 상징하며, 맨 위는 하늘(天)로 천시(天時)의 운명(運命)을 상징함.
*8괘의 음양구분법: 3효 가운데 같은 두 개를 빼고 남은 한 개로 구분함
- ②대성괘(大成卦: 重卦, 64卦): 6개의 효
아래의 3효는 하괘(下卦) 또는 내괘(內卦)로, 위의 3효는 상괘(上卦) 또는 외괘(外卦)가 됨. 팔괘인중설(八卦因重說: 3효인 8괘의 중첩설)로 보면 상괘와 하괘가 각각 천지인(天地人)이 되어 2효와 5효가 중(中)임. 6효분화설(六爻分化說: 1효의 누중설)로 보면 아래 두 개의 효가 지(地), 중간 두 개의 효가 인(人), 위 두 개의 효가 천(天)이 됨.

8.64괘에서 6효의 명칭과 상징성

- ① 6효의 명칭; 음효(陰爻)는 六(陰의 중간)으로 양효(陽爻)는 九(陽의 최고)로 읽음. 제1효는 초(初), 제6효는 상(上)을 붙여 읽고, 2효에서 5효는 그대로 읽음.
예)양효인 경우(用九)→초구효,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효

예)음효인 경우(用六)→초육효, 육이, 육삼, 육사, 육오, 상육효

② 6효의 상징성

초효는 10代·孫·庶人, 2효는 20代·子婦·士, 3효는 30代·子·大夫,
4효는 40代·母·公卿, 5효는 50代·父·天子, 상효는 60대·祖·上王
등을 상징

9.64괘의 12개월(음력)

정월은 지천태(地天泰,11번)괘, 2월은 뇌천대장(雷天大壯,34번)괘,
3월은 택천괘(澤天夫,43번)괘, 4월은 중천건(重天乾,1번)괘,
5월은 천풍구(天風姤,44번)괘, 6월은 천산돈(天山遯,33번)괘,
7월은 천지비(天地否,12번)괘, 8월은 풍지관(風地觀,20번)괘,
9월은 산지박(山地剝,23번)괘, 10월은 중지곤(重地坤,2번)괘,
11월은 지뢰복(地雷復,24번)괘, 12월은 지택림(地澤臨,19번)괘.

10.64괘의 구덕괘(九德卦) [繫辭傳下 第7章]

- ①천택리(天澤履,10번): 德之基, 和而至, 和行
- ②지산겸(地山謙,15번): 德之柄, 尊而光, 制禮
- ③지뢰복(地雷復,24번): 德之本, 小而辨於物, 自知
- ④뇌풍항(雷風恒,32번): 德之固, 雜而不厭, 一德
- ⑤산택손(山澤損,41번): 德之修, 先難而後易, 遠害
- ⑥풍뢰익(風雷益,42번): 德之裕, 長裕而不設, 與利
- ⑦택수곤(澤水困,47번): 德之辨, 窮而通, 寡怨
- ⑧수풍정(水風井,48번): 德之地, 居其所而遷, 辨義
- ⑨중풍손(重風巽,57번): 德之制, 稱而隱, 行權

11.역(易)을 보는 입장

①복서역(卜筮易): 역은 본래 점서(占書)임. 점을 쳐 길흉(吉凶)의 결과에 중심.

예)중국고대 및 한대(漢代)의 역

②상수역(象數易): 괘의 상(象)과 변화의 법칙인 수(數)에 중심.

예)송대 소옹(邵雍)의 역

- ③의리역(義理易): 도덕적 수양과 궁극적 천리(天理)에 중심.
예)공자의 십익 및 송대 이천(伊川)의 역

12.주역(64괘)의 기본사상

- ①음양(陰陽) 사상: 64괘의 기본 원리는 음양의 원리(2진법의 원리)이며, 양을 높이고 음을 억제하는 억음존양(抑陰尊陽)의 원리가 기본임.

예)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 善也, 成之者 性也」 (繫辭上,5章)

예)陽: 動, 強, 天, 日, 明, 春, 夏, 晝, 上, 前, 父, 君, 夫, 男, 君子, 貴, 吉, 福

예)陰: 靜, 柔, 地, 月, 暗, 秋, 冬, 夜, 下, 後, 母, 臣, 婦, 女, 小人, 卑, 凶, 禍

*위의 구분은 대체적인 것으로 고정된 것이 아님(입장과 상황에 따라 수시변화)

*음양의 관계는 상호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임

- ②중(中) 사상: 주역의 최고 지향점은 시중(時中)을 구현하는 것임. 그러므로 6효 중 2효(下卦의 中)와 5효(上卦의 中)가 가장 중요하며, 그러므로 2효와 5효는 대부분 길(吉)한 입장에서 제한적 의미로서의 흉(凶)만을 언급하고 있음.

- ③정위(正位) 사상: 6효가운데 홀수인 초효·3효·5효는 양의 자리이며, 짝수인 2효·4효·6효는 음의 자리임. 홀수자리에 양효가 자리하면 정위(正位)이며, 음효가 되면 부정위(不正位)가 됨. 정위가 되어야 천명(天命)을 바르게 구현 가능.

- ④정응(正應) 사상: 6효는 각각 상응(相應: 음효와 양효로 만남)하는 짝이 있는데 초효↔4효, 2효↔5효, 3효↔6효의 관계임. 정위(正位)에서 상응관계이면 정응(正應)이며, 정위는 아니지만 상응관계이면 응(應)이며, 정응관계가 아니면 적응(敵應)임. 정응일때 허물이 없고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대길(大吉) 가능.

- ⑤친비(親比) 사상: 6효에서 서로 인접한 이웃을 보는 것으로, 위효와 아래효의 관계가 음양으로 조화를 이루면 친비(親比)이며, 같은 음양으로 만나면 불비(不比)라고 하여 각 효의 가치는 이웃과 친비

관계일수록 가치가 극대화 가능함.

*이상의 5가지 사상을 종합하여 고찰할 때 올바른 64괘의 해석을 할 수 있음.

15. 『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 간행

- ①정이(程頤, 1033-1107)의 『伊川易傳』 완성(1099): 의리역(義理易)
- ②주희(朱熹, 1130-1200)의 『周易本義』 완성(1178): 복서역(卜筮易)
- ③명(明) 1414년(成祖12, 永樂12) 11월 칙명으로 『주역전의대전』 간행
: 24권. 호광(胡廣) 외 42인이 편찬. 140인의 주석
- ④1414년(世宗16, 甲寅) 경서정문(經書正文)으로 『주역전의대전』 간행
- ⑤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계몽전의(啓蒙傳疑)』
- ⑥1793년(正祖17) 활자본(活字本)으로 『주역전의대전』 간행
- ⑦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1792-1868)의 『주역전의동이석의(周易傳義同異釋義)』

16. 참고자료

- ① 『周易 (附諺解)』 (周易傳義大全, 4책), 學民文化社, 影印本
- ② 『易解』 (5책), 韓籍本 (한국 언해본)
- ③ 『大山周易講解』 (上下), 흥역학회학술총서1, 大有學堂, 1993
- ④ 『周易傳義譯解』 (上下), 大山 金碩鎭, 大有學堂, 1996
- ⑤ 『懸吐完譯 周易傳義』 (上下), 成百曉 譯註, 傳統文化研究會, 1998
- ⑥ 『周易參同契』,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 자유문고, 2007
- ⑦ 『皇極經世書』, 邵雍 著, 노영균 譯, 대원출판, 2002

2.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1. 河圖

(1)특성: 常數之體, 전체중심(主全), 자연수(十). 生數(12345)가 成數(678910)를 통솔, 음양의 조화, 운행은 左旋(北에서 東으로), 相生의 원리, 숫자의 총수는 55(1+2+3+4+5+6+7+8+9+10), 陰陽老少의 進退饒乏之正(陰陽老少의 互藏其宅之變), 八卦와 周易의 원리

(2)중앙의 5(五象本方,太極)와 10(全體,無極)의미: 주인(主,內)과 임금(君,正)역할

(3)하도의 생성수(生成數)

①생수(生數): 1(天,老陽,水), 2(地,少陰,火), 3(天,少陽,木), 4(地,老陰,金), 5(天,陽,土,太極)

*사위(四位): 1(老陽), 2(少陰), 3(少陽), 4(老陰)[5는 태극역할]

②성수(成數): 6(地,老陰), 7(天,少陽), 8(地,少陰), 9(天,老陽), 10(地,陰,無極)

*사수(四數): 9(老陽), 8(少陰), 7(少陽), 6(老陰)[10은 무극역할]

(4)상생(相生)의 원리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5)주역에서 用九와 用六

*用九: 생수(生數)에서 양수(陽數)의 합(1+3+5=9)

*用六: 생수(生數)에서 음수(陰數)의 합(2+4=6)

(6)太極에서 八卦로의 변화과정과 해당 숫자

太極(5,10)

↓

兩儀: 陽(1,3,7,9) 陰(2,4,6,8)

↓

四象: 太陽(1,9), 少陰(2,8), 少陽(3,7), 太陰(4,6)

↓

八卦: 乾(9,老陽,父), 兌(1,少陰,少女), 離(8,少陰,中女), 震(2,少陽,長男), 巽(3,少陰,長女), 坎(7,少陽,中男), 艮(4,少陽,少男), 坤(6,老陰,母)

(7)태극기의 사괘(四卦)

乾(9,老陽,父), 離(8,少陰,中女), 坎(7,少陽,中男), 坤(6,老陰,母)

2.洛書

(1)특성: 變數之用, 變化중심(主變), 활용수(九). 正位(陽數:1379)가 側位(陰數,2468)를 통솔, 음양의 부조화. 운행은 右旋(北에서 西로), 相剋의 원리, 숫자의 총수는 45(1+2+3+4+5+6+7+8+9), 參伍錯綜 등 변화무궁의 묘, 陰陽과 洪範의 원리
*하도와 낙서는 상호 체용의 관계임

(2)相剋의 원리 : 水剋火, 火剋金, 金剋木, 木剋土, 土剋水

(3)삼오의 변화(參伍以變)

*삼오(參伍): 생수에서의 3가지의 5(①5, ②1+4=5 ③2+3=5)

*여러 수(數)의 착종(錯綜其數)

(4)陽進陰退의 원리

*陽數: 1,3,5,7,9로 나감(天의 圓은 세배로 나감)

*陰數: 2,4,6,8,10이나 반으로 줌(地의 方은 두배로 나감)

(5)五行의 원리

水: 鹹, 羽(物), 西, 黑, 義, 朽

火: 苦, 徵(事), 南, 赤, 禮, 焦

木: 酸, 角(民), 東, 青, 仁, 羶

金: 辛, 商(臣), 北, 白, 智, 腥

土: 甘, 宮(君), 中, 黃, 信, 香

(6) 洪範九疇의 사상

* 禹 임금의 六府三事 (書經, 大禹謨)

* 六府: 水, 火, 金, 木, 土, 穀

* 三事: 正德, 利用, 厚生

* 武王의 洪範九疇 (箕子의 가르침)

① 五行: 水(潤下, 鹹), 火(炎上, 苦), 木(曲直, 酸), 金(從革, 辛), 土(稼穡, 甘)

② 五事: 貌(恭, 肅), 言(從, 乂), 視(明, 哲), 聽(聰, 謀), 思(睿, 聖)

③ 八政: 食, 貨, 祀, 司空, 司徒, 司寇, 賓, 師

④ 五紀: 歲, 月, 日, 星辰, 曆數

⑤ 皇極: 皇建其有極(中庸, 愛民, 王道)

⑥ 三德: 正直, 剛克, 柔克

⑦ 稽疑: 卜筮(雨, 霽, 蒙, 驛, 克)(貞, 悔)

⑧ 庶徵: 休徵(斗, 咎徵(雨, 暘, 燠, 寒, 風, 時)(歲, 月, 日, 星)

⑨ 福極: 五福(壽, 富, 康寧, 攸好德, 考終命), 六極(凶短折, 疾, 憂, 貧, 惡, 弱)

3. 선천역(先天易)과 후천역(後天易)

1. 중요한 9개의 圖

- (1)河圖: 伏羲氏, 河水, 龍馬, 常數之體(主全), 自然數(十), 周易.
- (2)洛書: 禹王, 洛水, 龜甲, 變數之用(主變), 活用數(九), 洪範.
- (3)伏羲八卦次序之圖: 天地自然의 原理의 空間적 구성과 확대. 太極, 兩儀(1變), 四象(2變), 八卦(3變: 1乾,2兌,3離,4震,5巽,6坎,7艮,8坤). 全體가 逆數.
- (4)伏羲八卦方位之圖: 天地自然의 原理의 時間적 運行과 지속성. 乾(南,午), 坤(北,子), 離(東,卯), 坎(西,酉), 震(東北), 兌(東南), 巽(西南), 艮(西北)의 방위. 乾과坤이 正位, 坎離가 偶位. 半은 逆數, 半은 順數.
- (5)伏羲六十四卦次序之圖: 八卦의 3變(十六, 三十二, 六十四卦), 天地의 小父母인 復卦와 姤卦 중심.
- (6)伏羲六十四卦方位之圖(圓圖,方圖): 天을 상징한 時間적 運行의 圓圖 속에 地를 상징한 空間적 구성의 方圖. 밖의 圓圖는 南쪽 乾卦에서 北쪽 復卦까지의 32괘는 下卦가 乾,兌,離,震의 순서로 初爻가 모두 陽이며, 남쪽 巽卦에서 북쪽 坤卦까지의 32괘는 下卦가 巽,坎,艮,坤의 순서로 初爻가 모두 陰으로 구성. 즉 左邊의 陽과 右邊의 陰의 상호 博易으로 圓圖 성립. 안의 方圖는 북쪽의 乾卦에서부터 남쪽의 坤卦까지 下卦가 乾,兌,離,震,巽,坎,艮,坤의 순서로 구성된 8개의 괘들을 모아 모두 64괘로 구성. 陰陽의 盈虛消息의 原理. 邵康節의 元會運世, 魏伯陽의 納甲法, 律呂法, 24節氣 등으로 활용.
- (7)文王八卦次序之圖: 天地의 大父母인 乾卦와 坤卦 2卦의 상호 博易으로 6子인 震(長男),坎(中男),艮(少男)과 巽(長女),離(中女),兌(少女)의 6괘가 구성. 程子의 卦變說에 영향.
- (8)文王八卦方位之圖: 天地自然의 運用(進化,成長)으로 孔子의 說卦傳에서 설명. 離(南,午), 坎(北,子), 震(東,卯), 兌(西,酉), 艮(東北), 巽(東南), 坤(西南), 乾(西北)의 방위. 즉 坎과 離가 正位, 震과 兌가 偶位.

(9)卦變圖: 64괘 彖傳의 卦變說 이해에 중요함. 1개爻變은 復卦, 姤卦, 2개爻變은 臨卦, 遯卦, 3개爻變은 泰卦, 否卦, 4개爻變은 大壯卦, 觀卦, 5개爻變은 夬卦, 剝卦 등이 중심이 되어 64괘가 변화됨을 설명. 朱子 卦變說에 영향.

2.先天易과 後天易의 특성

(1)先天易의 특성

- ①天地自然의 窮極的 原理.
- ②自然之妙, 太極.
- ③象數의 體.
- ④河圖와 伏羲易의 8卦의 畫.

(2)後天易의 특성

- ①天地自然의 人道的 運用.
- ②人爲之用, 陰陽, 人間의 制度.
- ③象數의 用.
- ④洛書와 文王易의 64卦의 卦辭.

3.先天易과 後天易의 중심인물과 내용

(1)先天易의 중심인물과 내용

- ①伏羲의 河圖와 四圖(위 九圖 중 3,4,5,6의 圖).
- ②孔子의 太極과 孟子의 故.
- ③後漢 魏伯陽의 『周易參同契』.
- ④北宋 邵雍(康節)의 象數易.
- ⑤南宋 朱子의 『周易本義』(古易).

(2)後天易의 중심인물과 내용

- ①洛書의 「洪範九疇」.
- ②文王의 二圖(위 九圖 중 7,8의 圖)와 64卦의 卦辭.
- ③周公의 64卦의 爻辭.
- ④孔子의 十翼과 義理易.
- ⑤南宋 程子(伊川)의 『周易程傳』(今易).

4. 先天易과 後天易의 상호보완의 중요성

(1) 今易의 淵源: ①天地自然의 易 ②伏羲易 ③文王易 ④周公易 ⑤孔子易.

(2) 今易의 特性: 위 ①은 자연원리로 존재. ②伏羲易은 文字없이 圖와 畫만 있으나 ③文王易④周公易⑤孔子易은 文字로 설명.

(3) 先天易의 明體와 後天易의 致用.

(4) 象數易과 義理易의 상호補完.

(5) 卜筮易과 義理易의 상호補完.

(6) 周易은 이상의 先天易과 後天易의 변화과정과 설명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이를 기반으로 64괘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活看의 자세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함이 중요함.

4. 팔괘(八卦)의 내용

(설괘전 제7장-제11장)

- (1) 乾(☰): 天, 健, 父, 首, 馬, 西北, 陽金, 圓, 君, 玉, 金, 寒, 冰, 大赤, 良馬, 老馬, 瘠馬, 駁馬, 木果, 龍, 直, 衣, 言
- (2) 兌(☱): 澤, 說(悅), 少女, 口, 羊, 西, 鳴, 陰金, 巫, 口舌, 毀折, 附決, 剛鹵, 妾, 常, 輔頰
- (3) 離(☲): 火, 麗, 中女, 目, 雉, 南, 明, 日, 電, 甲冑, 戈兵, 大腹, 乾卦, 鱉, 蟹, 贏, 蚌, 龜, 牝牛
- (4) 震(☳): 雷, 動, 長男, 足, 龍, 東, 陽木, 玄黃, 敷, 大塗, 長子, 決躁, 蒼莨竹, 萑葦, 善鳴, 鼻足, 作足, 的顙, 反生, 健, 蕃鮮, 玉, 鵠, 鼓, 茅, 大路, 蛇
- (5) 巽(☴): 風, 入, 長女, 股, 鷄, 東南, 陰木, 繩直, 工, 白, 長, 高, 進退, 不果, 臭, 寡髮, 廣顙, 多白眼, 近利市三倍, 躁卦, 楊, 鶴, 謙
- (6) 坎(☵): 水, 陷, 中男, 耳, 豕, 北, 潤, 溝瀆, 隱伏, 矯輮, 弓輪, 加憂, 心病, 耳痛, 血卦, 赤, 美脊, 亟心, 下首, 薄蹄, 曳, 多眚, 通, 月, 盜(寇), 堅多心, 宮, 律, 可, 棟, 叢棘, 狐, 蒺藜, 桎梏, 私心
- (7) 艮(☶): 山, 止, 少男, 手, 狗, 東北, 陽土, 徑路(小路), 小石, 門闕, 果蓏, 闔寺, 指, 狗, 鼠, 黔喙之屬, 堅多節, 鼻, 虎, 狐
- (8) 坤(☷): 地, 順, 母, 腹, 牛, 西南, 陰土, 布, 釜, 吝嗇, 均, 子母牛, 大輿, 文, 衆, 柄, 黑, 牝, 米, 方, 囊, 裳, 黃, 帛, 漿

5. 주역의 구덕괘(九德卦)

(계사하전 제7장)

- | | (구조) | (특성) | (효과) |
|------------------------|------|--------|------|
| (1)이괘(履卦, 10번 天澤履, ䷉): | 德之基, | 和而至, | 和行 |
| (2)겸괘(謙卦, 15번 地山謙, ䷎): | 德之柄, | 尊而光, | 制禮 |
| (3)복괘(復卦, 24번 地雷復, ䷗): | 德之本, | 小而辨於物, | 自知 |
| (4)항괘(恒卦, 32번 雷風恒, ䷟): | 德之固, | 雜而不厭, | 一德 |
| (5)손괘(損卦, 41번 山澤損, ䷨): | 德之修, | 先難而後易, | 遠害 |
| (6)익괘(益卦, 42번 風雷益, ䷗): | 德之裕, | 長裕而不設, | 興利 |
| (7)곤괘(困卦, 47번 澤水困, ䷮): | 德之辨, | 窮而通, | 寡怨 |
| (8)정괘(井卦, 48번 水風井, ䷯): | 德之地, | 居其所而遷, | 辨義 |
| (9)손괘(巽卦, 57번 重風巽, ䷸): | 德之制, | 稱而隱, | 行權 |

6. 설시법(揲蓍法)(점치는 방법)

*시초(蓍草): 명협(莫莢)이라고 하는 쑥 같은 모양의 풀로 달력풀 또는 책력풀이라고 함. 한 길 정도의 크기로 줄기가 100개(50개가 짝)임, 堯임금때 낫다는 전설상의 시초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잎이 하나씩 낫다가 그 후 그믐까지 떨어져 날짜 가는 것을 알았다고 함 (구하기 어려우므로 대나무 살로 만든 筮竹을 많이 사용)

(1)서죽(筮竹) 50개를 양손으로 잡고 향불의 김을 썩음. 축문을 읽음
(학생 김00가 ~~일로써 이에 물으니 어떻습니까?)

(2)서죽 50개에서 오른 손으로 1개를 뽑아 놓음(太極 상징)
한 집안의 어른은 하는 일 없이 하는 사람이므로 태극의 상징으로 빼는 것임

(3)서죽 49개를 자연스럽게 반으로 나누어 책상위에 놓음(兩儀 상징)

(4)책상위에 있는 왼쪽의 策은 왼 손으로 잡아들고, 오른손으로 오른쪽의 책에서 하나를 뽑아서 왼쪽 손의 끝 손가락 사이에 끼움(삼재 상징) [掛一]

(5)왼쪽의 책 묶음에서 4개씩을 세어서 책상위에 놓음(四時 상징)
남은 수를 왼쪽 손의 끝에서 둘째손가락 사이에 끼움(三歲一閏(3년에 1번 있는 윤달)을 상징) [初扚: 세고 남은 것 명칭]

*남는 것이 없는 경우 4개가 됨(0은 없음)

(실례)3개

(6)책상에 있는 오른쪽 책을 들어 왼쪽 손에 쥐고 또 4개씩을 세어 책상위에 놓고 남는 수를 왼쪽 손의 셋째손가락 사이에 끼움 [再扚]

(실례)1개

*초특이 1개면 재특은 3개로서 두 개의 합이 4개임(4개 되는 방식은

3가지임)

*초특이 4개면 재특도 4개로서 두 개의 합이 8개임(8개 되는 방식은 1가지임)

(7)최초에 뽑은 1개와 초특과 재특의 남은 책수를 모두 합쳐서 책상에 놓음[1變]

*세개의 책수를 모두 합치면 5개의 책수 아니면 9개의 책수가 됨

*5개의 책수는 작은 수의 奇數가 되며, 9개의 책수는 는 많은 수의 偶數가 됨

(실례)총 5개의 책수(1개(패1)+ 3개(초특)+ 1(재특)=5)

(8)나머지 책(49개에서 5개를 뺀 44개)를 자연스럽게 반을 나누어 책상위에 놓고 오른 쪽의 책에서 하나를 뽑아 왼쪽 손의 끝 손가락 사이에 끼움[掛一]

(9)왼쪽의 책 묶음에서 4개씩을 세어서 책상위에 놓고 남은 수를 왼쪽 손의 끝에서 둘째손가락 사이에 끼움[初拈]

(실례)2개

(10)책상위에 있는 오른쪽 책을 들어 왼쪽 손에 쥐고 또 4개씩을 세어 책상위에 놓고 남은 수를 왼쪽 손의 셋째손가락 사이에 끼움 [再拈]

(실례)1개

(11)최초에 뽑은 1개와 초특과 재특의 남은 책수를 모두 합쳐서 책상에 놓음 [2變]

(실례)총 4개의 책수(1개(패1)+ 2개(초특)+ 1개(재특)=4)

*세개의 책수를 모두 합치면 4개 아니면 8개의 책수가 됨

(12)1변과 2변의 책수를 제외한 나머지 책수로 다시 위의 방법으로 반복함 [3變]

(실례)총 8개의 책수

(13) 3변으로 나온 수를 아래 대조표를 이용해서 해당 괘를 찾아냄
 (실례) 1變의 총5개+ 2변의 총4개+ 3변의 총8개(548)에 해당되는 것을
 아래의도표에서 찾으면 兌의 少陰에 해당됨) (64괘의 初爻가 됨)

*대조표

乾(445,老陽)(합은 13책수. 총49책수에서 13책수 빼면 36책수 남음)
 兌(845,少陰)(합은 17책수. 총49책수에서 17책수 빼면 32책수 남음)
 離(485,少陰)(합은 17책수. 총49책수에서 17책수 빼면 32책수 남음)
 震(885,少陽)(합은 21책수. 총49책수에서 13책수 빼면 28책수 남음)
 巽(449,少陰)(합은 17책수. 총49책수에서 17책수 빼면 32책수 남음)
 坎(849,少陽)(합은 21책수. 총49책수에서 21책수 빼면 28책수 남음)
 艮(489,少陽)(합은 21책수. 총49책수에서 21책수 빼면 28책수 남음)
 坤(889,老陰)(합은 25책수. 총49책수에서 25책수 빼면 24책수 남음)

*老陽(乾)과 老陰(坤)은 動하는 것임

*주자(朱子) 『역학계몽(易學啓蒙)』에서 옥재호씨(玉齋胡氏)는 이를
 “중탁단교(重垢單交)”라고 함. 즉 重은 乾의 動이요, 垢은 少陰의 따
 개짐이요, 單은 少陽의 연결됨이요, 交는 坤의 動을 의미함

(14) 위의 방법으로 9번 반복하면 3괘인 內卦의 小成卦가 되며, 다시 9
 번 반복하면 3괘의 外卦가 갖추어져 大成卦가 됨 (本卦가 됨)

7.괘의 변화를 보는 방법

*설시(揲蓍)를 하여 나온 얻은 本卦의 老陽과 老陰의 動을 보아 여러 가지 변화됨을 살피는 방법

1.지괘(之卦): 본괘의 변화될 미래를 살펴봄

:本卦에서 老陽과 老陰으로 변화된 之卦(用卦)를 다음과 같이 살펴봄

①본괘 중에 한 줄도 변하지 않았을 경우→ 본괘의 卦辭, 象傳, 大象傳 등을 봄

②본괘 중에 한 줄이 변한 경우→本卦의 변한 효의 爻辭와 小象傳의 내용을 體로 하고 之卦의 해당되는 효의 爻辭와 小象傳을 用으로 하여 봄

③본괘 중에 두 줄이 변한 경우→本卦의 변한 효 중에 위에서 변한 줄을 體로 하고 아래에서 변한 줄을 用으로 하여 봄

④본괘 중에 세 줄이 변한 경우→本卦의 총론격인 卦사, 단전, 대상전의 내용을 體로 하고 之卦의 총론격인 卦사, 단전, 대상전의 내용을 用으로 하여 봄

⑤본괘 중에 네 줄이 변한 경우→之卦의 변하지 않은 효 중에서 아래의 효가 體가 되고 위의 효를 用으로 하여 봄 (위③의 반대개념)

⑥본괘 중에 다섯 줄이 변한 경우→之卦의 변하지 않은 효가 體로 하고 본괘의 변하지 않은 효를 用으로 하여 봄(위②의 반대개념)

⑦본괘 중에 여섯 줄이 변한 경우→之卦의 총론격인 卦사, 단전, 대상전 등을 봄

*부도전괘(不倒轉卦)의 경우 한 줄의 변화는 之卦의 도상(倒象)을 봄
예)重水坎卦(☵)의 初爻가 변하면 水澤節卦(☵)가 되지만, 節卦의 倒象은 風水渙卦(☵)가 되므로 渙卦의 初爻를 봄

2.호괘(互卦): 본괘의 내포된 의미를 살펴봄

:본괘에서 初爻와 上爻를 가리고, 2효3효4효를 下卦로 하고, 3효4효5효를 上卦로 만들어 본괘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함

(실례)水雷屯卦(☵)→山地剝卦(☶)

3.배합괘(配合卦): 반대 입장을 살펴봄

:본괘의 6효가 모두 반대되는 괘를 만들어 상반된 위치의 내용과 상황을 파악함

(실례)風火家人卦(䷤)→雷水解卦(䷧)

4.도전괘(倒轉卦): 상괘와 하괘의 상호 관계성을 살펴봄

:본괘의 上卦와 下卦를 반대되는 상괘와 하괘로 만들어 반대 입장의 상호 관계성을 파악함

(실례)水雷屯卦(䷂)→山水蒙卦(䷃)

(실례)風山漸卦(䷴)→雷澤歸妹卦(䷵)

*부도전괘는 乾卦(䷀), 坤卦(䷁), 頤卦(䷚), 大過卦(䷛), 坎卦(䷜), 離卦(䷄), 中孚卦(䷛), 小過卦(䷽) 등 8괘임

5.착종괘(錯綜卦): 상괘와 하괘의 위치가 바뀐 괘를 살펴봄

(실례)地天泰卦(䷊)→天地否卦(䷋)

*괘의 변화는 위 내용 중 1번(之卦)과 2번(互卦)를 제일 많이 사용함

8. 괘 변화를 보는 방법의 실례

(실례)

	택산함 (澤山咸)
--	--------------

상괘(외괘)는 [☱兌,澤]이며, 하괘(내괘)는 [☶艮,山]이 됨.

1. 함괘의 5효가 동한 지괘(之卦)는

	뇌산소과 (雷山小過)
--	----------------

임. 5효가 있는 함괘의 상괘(외괘)인 [☱兌,澤]가 [☳震,雷]로 변화된 것임. (*지괘는 앞으로 변화될 내용을 보는 것임)

2. 함괘의 호괘(互卦)는

	천풍구 (天風姤)
--	--------------

임. 즉 함괘의 상구효(上九爻)를 제거하면 외호괘인 [☰乾,天]이 되고, 함괘의 초육효(初六爻)를 제거하면 내호괘인 [☴巽,風]이 된 것임. (*호괘는 본괘의 내면에 담긴 의미를 보는 것임)

3. 함괘의 도전괘(倒轉卦)는

	뇌풍항 (雷風恒)
--	--------------

임. 즉 함괘의 하괘(내괘)인 [☶艮,山]이 외도전괘인 [☳震,雷]로 되고, 함괘의 상괘(외괘)인 [☱兌,澤]가 내도전괘인 [☴巽,風]으로 변화된 것.

(*도전괘는 본괘의 반대쪽 입장의 의미를 보는 것임)

4. 함괘의 배합괘(配合卦)는

	산택손 (山澤損)
--	--------------

임. 즉 함괘의 상괘(외괘)인 [☱兌,澤]가 [☶艮,山]이 되고 함괘의 하괘(내괘)인 [☶艮,山]이 [☱兌,澤]로 변화된 것임.

(*배합괘는 본괘의 전체가 변화된 입장의 의미를 알 수 있음)

9. 역설강령(易說綱領)의 요지(要旨)

1. 程子(伊川, 1033-1107)(義理易 중심)

上天의 본체는 易이요, 원리는 道요, 작용은 神이다.

- (1) 陰陽 전체의 합벽(闔闢)은 易이요, 個體 한 건의 합벽은 變이다.
- (2) 易에는 理가 있으므로 인간이 安排하면 안 된다. 천지 음양의 변화는 영원하나 운행되는 현실에서는 陽이 많고 陰이 적기 때문에 여러 변화가 일어난다.
- (3) 易에서는 反復과 往來와 上下가 중심이 된다.
- (4) 易은 天地의 오묘함에서 초목의 미세한데까지 맞지 않음이 없다.
- (5) 聖人の 道는 易에 담겨 있는데, 후대 사람들은 理를 구해도 잘 얻지 못한다.
- (6) 정자가 토끼를 파는 사람(賣兔者)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 토끼 속에 八卦의 數理가 담겨 있다고 하였다. 聖人이 다만 당시 나타난 神物을 보고 河圖와 洛書를 말한 것일 뿐 천하 만물에는 모두 易의 원리가 담겨 있다.
- (7) 理가 있는 뒤에 象이 있고, 象이 있는 뒤에 數가 나오는 것이므로 易은 象을 통해 數를 알 수 있으며, 理(義)를 알면 象과 數가 그 속에 있다. 術家에서는 象의 오묘함을 추구하지만, 儒家에서는 이에 힘써서는 안 된다.
- (8) 易數보다 易理를 알면 天을 알 수 있다.
- (9) 64괘에서 乾卦와 坤卦가 중요하지만, 64괘의 384효를 모두 알아야 한다.
- (10) 易은 때(時)를 알아야 하며, 6효가 聖人이나 衆人이나 모두 각자의 신분과 상황에서 유용한 것이다.
- (11) 易을 볼 때는 때(時)를 안 뒤에 卦와 爻의 뜻을 잘 보아야 한다.
- (12) 卦와 爻의 뜻이 이미 있으므로 聖人은 별도의 뜻을 밝힌 경우도 있다.
- (13) 『서경』과 『논어』는 한 글자마다 의미를 두고 이해해야 하지만, 『시경』, 『주역』, 『춘추』 등은 글귀에 집착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 繫辭에 성인의 뜻이 모두 담겨 있다.

(14)經典이해는 먼저 義理를 밝게 알아야 聖人の 道 전수의 의미를 알게 된다.

(15)易의 이해는 曾子와 子夏가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16)孟子의 의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역을 볼 수 있다.

(17)易의 原理를 이해해야지 오늘날 사람들처럼 천착해서 易을 보아서는 안된다.

(18)易은 글뜻(文義)에 붙잡히지 말고, 조용히 마음으로 이해(默識心通)해야 한다.

2.朱子(晦庵,1130-1200)(卜筮易 중심)

*易은 陰陽의 理를 밝힌 것으로 理가 있으면 象이 있고 數가 있다.

*數는 氣가 나누어지는 경계와 절도가 있는 곳으로 양의 홀수와 음의 짝수가 있으므로 聖인이 河圖와 洛書를 보고 8괘와 64괘를 만든 것이다.

*획이 그어지면 吉凶이 나타나므로 占筮가 있게 되었다. 즉 시간 속에는 消長이 있어 자라남과 사라짐의 主客의 구분이 있게 되고 일 속에는 마땅함의 여부가 있어 善惡의 구분이 있게되어 吉凶의 占이 있게 된 것이다.

*伏羲氏가 64괘를 그은 뒤 文王이 卦辭를 짓고 周公이 爻辭를 지어 吉凶의 내용을 밝혔다.

*천하의 道는 위치와 상황에 따라 길흉이 나뉘어지게 되는 데 일반인들은 그 기미를 모르므로 聖인이 점서의 방법을 통하여 알게 하였다. 居處할 때는 卦의 象과 辭를 보아야 하며 活動할 때는 變化와 占筮를 보아야 한다. 이 때문에 夏殷周의 三代에 걸쳐 太卜官이 있어 占筮를 활용하였으며, 『春秋左傳』에 점괘를 밝힌 繇辭가 있었던 것이다. 占筮에는 일처리의 원리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文王이 卦辭를 붙인 것은 假說하여 말 한 것이므로 그 말에 고착되어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즉 卦와 爻에는 “임금을 세움이 이롭다”와 “제사를 지냄이 이롭다”등의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외에는 무궁한 뜻이 담겨 있으므로 한 가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孔子가 비로서 義理를 밝혀 말했지만, 孔子의 義理易으로 文王의 卜筮易을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 (1) 천하만사는 陰과 陽이 있을 뿐이다. 눈을 뜨고 감음, 인과 의, 강과 유, 동과 정이 모두 음양이다. 이러한 陰陽에는 氣가 있고 理가 있다. 伏羲氏가 陰陽만 말하면 모든 理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錯綜하여 64괘를 만들어 보인 것이다. 『詩經』과 『書經』 등은 어떤 사실에 의해 道理를 밝힌 것이나 易은 假定해서 未來를 설명한 것이다.
- (2) 易은 陰陽이 錯綜하고 交換한 것이다. 數로 보면 홀수(奇)와 짝수(偶)이나 質로 보면 剛과 柔이다.
- (3) 易은 陰陽의 屈伸이요 隨時變易이다. 64괘도 陰陽의 奇偶로 만들어 낸 것이다.
- (4) 楊時(1053-1135)가 詹季魯의 집을 방문했을 때, 易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종이 한 장을 취하여 먹물로 반을 까맣게 칠하면서 이것이 易이라고 말하였으니 이 설명이 좋았다. 易은 하나의 陰과 陽이 무수한 모양을 만들어 낸 것이다.
- (5) 노자가 “潔靜精微가 易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의 도리를 가정해 놓고 포괄적으로 말한 것으로 좋은 말이다. 그러나 후대 道家에서 이를 취하여 易을 老子的 학설로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즉 老子的 易 설명과 老子的 학문은 별개인 것이다.
- (6) 易의 象辭와 『春秋左傳』의 繇辭는 같은 것이다. 文王의 卦辭, 周公의 爻辭, 孔子의 象傳, 象傳, 繫辭傳 등은 모두 周易 經文의 大體와 凡例를 밝힌 것이다.
- (7) 周敦頤(1017-1073)의 『通書』에서 聖人의 精과 縊을 설명하고 있는데, 精은 卦를 그어 本旨를 밝힌 것이며 縊은 卦에 담겨 있는 수많은 道理를 밝힌 것이다. 孔子의 文言傳과 繫辭傳 등은 이 도리를 밝힌 것이다. 卦를 그은 精과 卦의 도리를 밝힌 縊은 별도로 이해하여서는 안 되고 같이 보아야 한다.
- (8) 易의 象은 象이 나오게 된 근거와 象의 活用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한다. 漢代의 諸儒들은 象의 근거에 밝지 못하였으며, 王弼(226-249)이후에는 象의 활용에 부족하였다. 실례로 漢儒들

은 周易에서 屯卦의 馬, 離卦의 牛, 乾卦의 龍, 坤卦의 馬 등이 「說卦傳」의 설명과 연결이 안되고 이해하기 어려우니 互體, 變卦, 五行, 納甲, 飛伏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억지로 맞추었으니 이는 모두 자연의 원리가 아니다. 우연히 맞더라도 義理의 본질과 人事의 활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王弼과 程子是 易의 원리와 義理를 밝혀 漢儒들의 천착되고 지리한 잘못을 지적하였으나, 卜筮로서의 활용에 미진하다. 易에는 象을 취한 연유가 있으나 지금 자세히 상고할 수 없지만 假設하였다고 하여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우선 王弼, 程子와 朱子의 설명으로 보충해야 한다.

(9)伏羲氏가 8卦를 그어 그 속에 萬理를 담고 있으므로 易은 卦辭보다 象이 중요한데, 王弼과 伊川은 象을 중요시하지 않고 理만 중시하므로 朱子가 「易象說」을 지어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다.

(10)易의 象에는 ①음양으로 구성된 卦의 象 ②자연의 상징으로 설명한 것 ③聖人의 의미로 설명한 것 등의 3가지 양태가 있다.

(11)易을 볼 때 정해진 象으로 보면 흥미가 매우 많게 되지만, 만약 정해진 象이 없이 假設로만 이해하면 의미가 없게 된다. 비록 (義理 易 입장에서는) 理를 얻으면 象과 數가 그 속에 있다고 말하지만, 먼저 象과 數를 보고 근거가 되는 理를 설명해야 잘못되지 않게 된다. 일에 實證이 없으면 虛理가 되기 때문이다.

(12)上古시대에 聖人이 역을 통해 吉凶을 밝혔는데, 이때에는 文辭가 없이 占만 쳐서 吉凶의 까닭을 알지 못했는데, 孔子가 中正하여야 吉하게 됨을 밝혔다. 乾卦와 坤卦의 文言傳의 내용이 바로 이 도리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는 吉凶의 까닭을 밝힌 것이지, 吉凶을 밝힌 聖人의 本旨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易을 배울 수 있다.

(13)聖人이 易에서 假設한 말은 한 원리를 밝혀 한 가지 일에만 해당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卜筮할 때에 모든 일에 적용시키려는 뜻이다.

(14)上古의 易은 利用과 厚生에 중심을 두었는데 周易에 이르러 正德을 밝혔다. 예를 들어 “한결같고 바름(眞正)이 있어야 吉하다”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眞正해야 吉함을 알게 한 것이다. 孔子의 설명이 중심을 이룬다.

(15)易은 여러道理가 담겨있는 卦와 象으로 吉凶을 밝힌 卜筮易이다.

- (16) 易은 본래 卜筮의 책인데 王弼이 老莊으로 해석한 뒤부터 易理만 강조되고 卜筮를 외면하게 되었으니 잘못된 것이다. 伏羲氏가 획을 그을 때에는 문자가 없이 陽은吉하고 陰은凶하다고 하였는데, 文王이 象辭를 짓고 周公이 爻辭를 지어 설명하고 孔子가 十翼을 지어 卜筮의 뜻을 밝힌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卦爻의 본래 뜻을 외면하고 繫辭에 담긴 易理만 보니 易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 (17) 易은 卜筮易이다. 『周禮』에 太卜官을 두었으며, 秦나라 때도 易을 卜筮易으로 보아 焚書의 화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易을 卜筮라 하면 심히 모욕된 것처럼 여기니 이는 孔子의 義理易만 알고 易이 ‘吉凶悔吝의 理’를 밝힌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날 易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것은 周易에 점치는 방법이 많이 없어진 때문이다. 理 속에 占이 있다고 하지만 理를 말한 뒤 어찌 占法이 따라오겠는가?
- (18) 易은 卜筮로 疑惑을 해결하는 것이다. 道理의 당위성 여부에만 의거한다면 占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한 가지 일에 吉凶이 담겨 있어 그 처신방법을 모를 때 占을 치는 것이다.
- (19) 오늘날 학자들이 易은 義理를 위해 지었다고 주장하니, 과연 義理만을 위한 것이라면 『中庸』과 『大學』의 책으로도 충분한데 어찌서 八卦를 지었겠는가?
- (20) 陽爻는吉하고 陰爻는凶한 것이지만 마땅히 처한 위치에 따라 어떠한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할 때 안하거나, 안해야 할 때 한다면 비록 陽이라도凶한 것이다.
- (21) 易에서 貞해야吉하고 利로운 것이지 不貞하면凶하고 不利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張載(1020-1077)가 “易은 君子를 위해 만든 것이지 小人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좋다.
- (22) 易의 많은 卦에서 利를 말하고 있으니 占을 위해 만든 것이다.
- (23) 易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伏羲易은 文字가 없이 卦에 象만 보여서 卜筮를 밝힌 것이며, 文王과 周公의 易은 卦辭와 爻辭를 말하여 일반 道理를 밝힌 卜筮易이며, 孔子易은 象傳, 象傳, 文言傳 등을 통해 의리와 德을 밝힌 것으로 모두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 (24) 易을 읽는 방법은 卦辭와 爻辭는 본래 卜筮를 위한 설명이며, 孔子의 彖傳, 象傳, 文言傳은 吉凶과 경계의 뜻엔 근거해 義理를 미루어 밝힌 것임을 알아야 한다. 後人들이 의리역만 알고 卜筮易을 卑俗하게 여김은 日常에 도움이 안 되며 억지 왜곡으로 역의 오묘함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한 卦와 한 爻를 읽을 때마다 虛心한 마음으로 卦辭의 뜻을 헤아려 吉凶과 可否의 방법을 얻은 뒤 그 원리를 추구하여 본다면 복희씨와 文왕과 公자의 유지를 알게 될 것이다.
- (25) 伏羲易, 文王易, 孔子易, 伊川易 등은 모두 그 특성이 있으므로 배우는 사람은 시대에 따라 본문을 먼저 읽어 본지를 알아야 한다.
- (26) 易을 볼 때는 먼저 伏羲氏가 획을 긋기 이전에 어떤 象이 있었나를 알아야 한다. 괘를 긋기 이전에는 지극히 虛하고 靜한 상태에서 많은 象數와 吉凶의 道理가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있는 사실에 근거해 기술한 『詩經』이나 『書經』과는 다르게 易은 이러한 지극히 虛靜한 속에서 수많은 象과 數를 假設해 지어낸 것이므로 神靈한 것이다.
- (27) 易은 錯綜해서 보아야 한다. 천하의 善惡, 是非, 得失 등의 모든 일들이 음양의 屈伸, 消長, 盛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복희씨와 文王 등도 이 음양의 원리를 밝힌 것이므로 이를 배워야 한다.
- (28) 易은 萬理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 易은 본래 卜筮易으로 이 속에 萬理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理, 象, 數 등을 이해함에 치우침 없이 보아야 한다. 역을 본래 聖人이 큰 수고로움이 없이 지었으며 깊은 의미 없이 虛字를 사용하였는데, 후인들이 實字로 이해하여 망령되게 많은 말을 지어내어 聖人의 本旨와 관계없는 것으로 소용이 없게 되었다. 易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작은 지혜로 천착해도 안 되고, 큰 설명으로 과장해서도 안 된다.
- (29) 易을 보기 어려운 것은 다른 經典에 나오는 孝悌나 仁 등과 같이 실제사물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30) 易을 보기 어려운 것은 卦辭나 爻辭 등의 말 속에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말로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31) 易은 볼 때는 4일에 한 卦만 보아야 한다. 1일은 卦辭, 彖傳, 象傳 등을 보고, 2일과 3일은 6爻를 보며, 4일은 卦전체를 보는 것이

다. 程子の 제자인 尹惇은 하루에 1괘만 보았다고 하는데 이는 너무 작은 조각에 빠져 전체를 보지 못하기 쉬운 문제점이 있다. 易에서 먼저 乾卦와 坤卦의 본지를 잘 보면 뒤의 卦를 보는 통로가 열릴 것이다.

(32) 易은 사람들이 평상시 두려워하고 반성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일이 생긴 뒤 占을 친 다음에 경계함 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易을 공부하며 처신의 도리를 배우는 것이 좋다. 孔子가 易을 배우고자 하신 것(學易)도 평상시 공부에 힘써 조그만 허물도 없게 하였으므로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33) 易을 읽는 방법은 먼저 經文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 彖, 象, 繫辭 등을 보아야 한다. 爻辭는 吉凶의 詩文을 뽑아 점치는 것과 같다.

(34) 易을 읽는 방법은 자기 생각을 개입하지 말고 虛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35) 易을 읽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마음이 虛明하고 寧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은 무궁한 사리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人生의 많은 經綸이 있는 뒤에 보아야 무궁한 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孔子께서도 晩年에 易을 좋아하셨으니 易은 일찍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36)(朱子の) 「本義」에서 卜筮를 위주로 한 까닭은 易의 經文을 잘 보면 알 수 있다. 본래 古代의 易은 經文과 단, 상, 문언 등이 별도로 있었던 것이다. 왕필 이후 모아서 경문 아래에 붙여 놓은 것이므로 후세에 바꾸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주해들은 나중에 보고 우선 經文을 熟讀하면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37)(朱子가) 「本義」을 처음 지을 때 卦辭를 보아 분명이 알면 彖辭도 저절로 알게 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못 했다. 즉 卦義, 卦象, 卦體, 卦變을 올바르게 알면 아래에 각주 등을 볼 필요가 없도록 하고자 하였는데, 지금의 해석이 본래 뜻인지도 의문이 간다. 또한 「本義」을 처음 지을 때에 文王의 卦辭에 의거하여 대강 卜筮의 내용을 밝히고, 孔子의 彖辭에 의거해 그 吉凶의 근거를 밝히고 하였으나 정리하지 못하였다. 실례로 大畜卦에서 文王의 卦辭인 “바르면 이롭고 자기 집에서만 먹지 않아서 길하며 大川을 건너면 이롭다”는

것으로吉凶을 밝히고, 공자의 象辭인 “剛이 올라가 賢人을 숭상한다”로吉凶의 까닭을 밝혀(卦變圖에 의거해 需卦의 上卦인 水가 大畜卦의 上卦인 艮으로 바뀐 것) 문왕과 공자의 본지를 잘 들어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38)나의 역(朱子易)은 卜筮를 위해 지은 것이다. 먼저 伏羲易과 文王易의 卜筮易으로 간단명료하게 이해한 뒤에 孔子의 義理易으로 정밀하게 이해하여 易의 本旨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義理易으로 너무 정밀하게 이해하는데 빠져 易이 갖고 卜筮의 요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먼저 道理만을 밝혀 易을 잘 설명한 것 같으나 易의 本旨와 상관없게 되었다.

(39)나의 역(朱子易)이 간략한 것은 伊川과 제유들이 義理易을 자세히 말하였으므로 역의 핵심을 뽑아 간략히 뜻만 통하도록 한 때문이다.

(40)최근에 趙子欽이 편지글에서 내(朱子)가 “『論語』와 『孟子』 등의 설명은 매우 자세한데 비하여 易의 설명은 너무 간략한데 이는 대나무등불과 같아 조금이라도 가리면 그 만큼 어두울 것이니 전부 밝히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나의 易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1)易을 볼 때 나(朱子)의 「本義」를 먼저 보고 伊川의 「程傳」으로 참고하도록 하라. 만약 다른 사람들의 易을 보지 않고 내 설명을 먼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異說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10. 보충자료1

[洪 範]

(「書經」, 卷6, 周書)

○惟十有三祀에 王이 訪於箕子하시다 王이 乃言曰 嗚呼라 箕子아 惟天이 음
즐下民하사 相協厥居하시니 我는 不知其彝倫攸斁하노라 箕子乃言曰 我聞하
니 在昔鯀이 陞洪水하여 汨陳其五行한대 帝乃震怒하사 不畀洪範九疇하시니
彝倫攸斁니라 鯀則殛死어늘 禹乃嗣興하신대 天乃錫禹洪範九疇하시니 彝倫攸
斁니라

(周 武王) 13년에 무왕이 기자를 방문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아아, 기자여! 하늘은 백성
을 보호하여[陰鷲] (그들로 하여금) 서로 화목하게 살도록 하지만, 나는 그 변치 않는 도
리[彝倫]를 어떻게 제정해야 할지를 모르겠구나.” 기자가 이에 대답하여 말하였다. “저는
옛날에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곤이 홍수를 막으면서 오행을 어지럽혔기에 상제가 이에
진노하여 홍범구주를 주지 않아서 변치 않는 도리가 무너졌습니다. 곤이 죄를 받아서 죽
고 우가 이에 뒤를 이어 일어나자 하늘이 이에 우에게 홍범 구주를 주어 변치 않는 도리
가 제정되었습니다.

○初一은 曰五行이요 次二는 曰敬用五事이요 次三은 曰農用八政이요 次四는
曰協用五紀이요 次五는 曰建用皇極이요 次六은 曰乂用三德이요 次七은 曰明用
稽疑이요 次八은 曰念用庶徵이요 次九曰饗用五福이요 威用六極이니라

첫번째는 오행이며, 두번째는 다섯 가지 일[五事]에 신중한 것이며, 세번째는 여덟 가지
정치를 힘써 시행하는 것이며, 네번째는 다섯 가지 절기에 조화되는 것이며, 다섯번째는
임금의 법칙을 사용하여 군권을 세우는 것이며, 여섯번째는 세가지 덕을 사용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며, 일곱번째卜과 筮에 문의하여 명철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덟번째는 여
러 가지 징험들을 고려하는 것이며, 아홉번째는 다섯 가지 복을 사용하여 기르고 여섯 가
지 곤궁에 빠뜨리는 수단을 사용하여 징벌하는 것입니다.

○一五行은 一曰水이요 二曰火이요 三曰木이요 四曰金이요 五曰土니라 水曰潤下
이요 火曰炎上이요 木曰曲直이요 金曰從革이요 土爰稼穡이니라 潤下는 作鹹하
고 炎上은 作苦하고 曲直은 作酸하고 從革은 作辛하고 稼穡은 作甘이니라

첫번째는 오행입니다. 하나는 수이고, 둘은 불이며, 셋은 나무이고, 넷은 쇠이며, 다섯은
땅입니다. 물은 내려가면서 적시는 것이며, 불은 올라가면서 태우는 것이며, 나무는 구부
리고 펴 수 있는 것이며, 쇠는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것이며, 땅은 심고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면서 적시는 것은 (그 맛이) 짜며, 올라가면서 태우는 것은 (그
맛이) 쓰고, 구부리고 펴 수 있는 것은 (그 맛이) 시며,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것
은 (그 맛이) 매우며, 심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은 (그 맛이) 달니다.

○二五事는 一曰貌이요 二曰言이요 三曰視이요 四曰聽이요 五曰思니라 貌曰恭이
이요 言曰從이요 視曰明이요 聽曰聰이요 思曰睿니라 恭은 作肅하며 從은 作乂
하며 明은 作哲하며 聰은 作謀하며 睿는 作聖이니라

두번째는 다섯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태도이며, 둘은 말이고, 셋은 보는 것이며, 넷은 들

는 것이며, 다섯은 생각입니다. 태도는 공손해야 하며, 말은 정당하게 해야 하며, 보는 것은 분명해야 하며, 듣는 것은 또렷해야 하며, 생각은 두루 통달해야 합니다. 태도가 공손하면 엄숙할 수 있고, 말이 정당하면 다스릴 수 있고, 보는 것이 분명하면 지혜로울 수 있고, 듣는 것이 또렷하면 計謀가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두루 통달하면 사리에 밝을 수 있습니다.

○三八政은 一曰食이요 二曰貨요 三曰祀요 四曰司空이요 五曰司徒요 六曰司寇요 七曰賓이요 八曰師니라

세번째는 여덟 가지 정치입니다. 하나는 식량을 관장하는 관직이며, 둘은 재정을 관장하는 관직이며, 셋은 제사를 관장하는 관직이며, 넷은 백성의 토지와 사는 곳을 관장하는 사공이며, 다섯은 교육을 관장하는 사도이며, 여섯은 도적을 체포 심문하는 사구이며, 일곱은 제후를 초대하는 관직이며, 여덟은 군사를 관장하는 관직입니다.

○四五紀는 一曰歲요 二曰月이요 三曰日이요 四曰星辰이요 五曰歷數니라

네번째는 다섯 가지 절기입니다. 하나는 해이며, 둘은 (매해의) 달이며, 셋은 (매달의) 날수이며, 넷은 성과 신(을 관찰하는 것)이며, 다섯은 역법 산수(의 推算)입니다.

○五皇極은 皇建其有極이니 斂是五福하여 用敷錫厥庶民하면 惟時厥庶民이 于汝極에 錫汝保極하리라 凡厥庶民이 無有淫朋하며 人無有比德은 惟皇이 作極일세니라 凡厥庶民이 有猷 有爲 有守를 汝則念之하며 不協于極이라도 不罹于咎어든 皇則受之하라 而康而色하여 曰予攸好德이라커든 汝則錫之福하면 時人이 斯其惟皇之極하리라 無虐癘獨하고 而畏高明하라 人之有能有爲를 使羞其行하면 而邦이 其昌하리라 凡厥正人은 旣富오사 方穀이니 汝弗能使有好于而家하면 時人이 斯其牽리라 于其無好德에 汝雖錫之福이라도 其作汝用咎리라 無偏無陂하여 遵王之義하며 無有作好하여 遵王之道하며 無有作惡하여 遵王之路하라 無偏無黨하면 王道蕩蕩하며 無黨無偏하면 王道平平하며 無反無側하면 王道正直하리니 會其有極하여 歸其有極하리라 曰皇極之敷言이 是彝是訓이니 于帝其訓이시니라 凡厥庶民이 極之敷言을 是訓是行하면 以近天子之光하여 曰天子作民父母하사 以爲天下王이라하리라

다섯번째는 군주의 법칙입니다. 군권을 건립함에는 법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복을 모아서 이를 사용하여 백성에게 널리 베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백성들이 당신에게서 법칙을 얻고, 당신과 함께 법칙을 지키게 됩니다. 무릇 백성들에게는 못된 무리가 없고 관리들에게도 자신들의 샅된 무리들을 편드는 행위가 없으며, 오직 군주를 법칙으로 삼습니다. 무릇 백성들에게는 計謀가 있고 포부가 있고[有爲] 지키는 것이 있으니 당신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법칙에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죄악에 빠지지 않았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저는 아름다운 덕을 좋아합니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군주를 법칙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 사납게 굴지 마시고 고명한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관리 중에) 재능이 있고 포부가 있는 사람을 순리대로 행동하게 한다면 당신의 나라는 강성하게 될 것입니다. 무릇 관리들을 이미 일정한 복록으로 풍족하게 해주면서도, 당신이 만약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에 공을 세우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죄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국가에 공을 세우지 못했다면, 당신이

비록 그들에게 복을 주더라도 그들의 행위로 인해 당신은 백성들의 원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빼돌어지고 부정하지 않아야 왕의 법칙을 따를 수 있으며, 사심으로 편애하지 않아야 왕의 도를 따를 수 있으며, 혹 죄악을 저지르지는 일이 없어야 왕의 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왕은) 한쪽만을 좋아하거나 편들지 않아야 왕도가 평탄해지며, 한쪽만을 좋아하거나 편들지 않아야 왕도가 평이해지며, 이랬다저랬다 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말아야 왕도가 바르고 곧게 됩니다. (왕이 제후와 신하들을) 모으는 데는 법칙이 있으며, (제후와 신하들이 왕에게) 귀의하는 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군주의 법칙에 대해 진술한 말은 법으로써 취해야 하며, 이를 가지고 백성을 교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상제를 따르는 것입니다. 무릇 백성들이 이상에서 법칙을 진술한 말을 따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면 천자의 광명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백성들이 천자의 광명에 가까워지는 것은) 천자가 백성들의 부모이며 천하의 군왕이기 때문입니다.

○六三德은 一曰正直이요 二曰剛克이요, 三曰柔克이니 平康은 正直이요 彊弗友는 剛克하고 變友는 柔克하며 沈潛은 剛克하고 高明은 柔克이니라 惟辟이사 作福하며 惟辟이사 作威하며 惟辟이사 玉食하나니 臣無有作福作威玉食이니라 臣之有作福作威玉食하면 其害于而家하며 凶于而國하여 人用側頗僻하며 民用僭忒하리라

여섯번째는 세가지 덕입니다. 하나는 바르고 곧은 것이며, 둘은 지나치게 강한 것이며, 셋은 지나치게 부드러운 것입니다. 平正 中和하면 바르고 곧으며, 강하되 온화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강한 것이며, 화순하되 견강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부드러운 것입니다. 침잠한 사람(즉, 柔克한)은 강한 것으로 다스리고, 고명한 사람(즉, 剛克한) 사람은 부드러운 것으로 다스립니다. 임금만이 사람들에게 복을 줄 권력이 있으며, 임금만이 사람들을 징벌할 권력이 있으며, 임금만이 옥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신하에게는 복을 주고, 벌을 주며, 옥식을 누릴 권력이 없습니다. 신하들에게 복을 주고, 벌을 주며, 옥식을 누릴 권력이 있다면 당신의 국가에 해를 끼칠 것이며, 당신의 국가에 재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들이 이렇게 된다면 부정하게 되고 백성들은 본분을 지키지 않고 악한 짓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七稽疑는 擇建立卜筮人하고서 乃命卜筮니라 曰雨와 曰霽와 曰蒙과 曰驛과 曰克이며 曰貞과 曰悔니라 凡七은 卜五요 占用二니 衍忒하나니라 立時人하여 作卜筮하되 三人이 占이어든 則從二人之言이니라 汝則有大疑어든 謀及乃心하며 謀及卿士하며 謀及庶人하며 謀及卜筮하라 汝則從하며 龜從하며 筮從하며 卿士從하며 庶民從이면 是之謂大同이니 身其康彊하며 子孫이 其逢吉하리라 汝則從하며 龜從하며 筮從이요 卿士逆하며 庶民이 逆하여도 吉하리라 卿士從하며 龜從하며 筮從이요 汝則逆하며 庶民이 逆하여도 吉하리라 庶民이 從하며 龜從하며 筮從이요 汝則逆하며 卿士逆하여도 吉하리라 汝則從하며 龜從이요 筮逆하며 卿士逆하며 庶民이 逆하면 作內는 吉하고 作外는 凶하리라 龜筮共違于人하면 用靜은 吉하고 用作은 凶하리라

일곱번째는 의문이 있으면 (복과 서예) 문의하는 것입니다. 거북점을 치고 시초점을 치는 관리를 가려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거북점과 시초점을 치도록 명하십시오. (거북의 터진 모양[兆]에는) 비오는 모양이 있으며, 비가 그치고 구름이 위에 있는 모양이 있으며,

구름의 모양이 있고, 있는 듯 없는 듯한 뜬구름의 모양이 있으며, 서로 침범하는 재앙의 氣色이 있으며, (卦象)에는 내괘가 있고, 외괘가 있습니다. (거북의 터진 모양과 패상은) 모두 일곱 가지로 거북점에 속하는 것에는 다섯 가지가 있고 시초점에 속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점을 칠 때에는 두가지를 다 사용하며, (위의 여러 가지 터진 모양과 상에 근거하여) 추리하고 변화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거북점과 시초점을 담당하게 하는데, 만약 세 사람이 거북의 터진 모양과 패상을 판단하였다면 두 사람의 주장을 따라야 합니다. 당신에게 만약 커다란 의문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경사와 논의하며, 서인들과 논의하고, 거북점과 시초점에 물어 보십시오. 당신이 찬성하고, 거북점도 찬성하고, 시초점도 찬성하며, 경사들도 찬성하고, 백성들도 찬성한다고 이를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편안하고 강건하며 당신의 자손들도 반드시 왕성할 것이니, 이것은 길한 것입니다. 당신이 찬성하고, 거북점도 찬성하며, 시초점도 찬성하는데, 경사들이 반대하고, 백성들이 반대한다면 이것은 길합니다. 경사들이 찬성하고, 거북점도 찬성하고, 시초점도 찬성하는데, 당신이 반대하고, 백성들도 반대한다면, 이것은 길합니다. 백성들이 찬성하고, 거북점도 찬성하며, 시초점도 찬성하는데, 당신이 반대하고, 경사들도 반대한다면, 이것은 길합니다. 당신이 찬성하고, 거북점도 찬성하는데, 시초점이 반대하고, 경사들도 반대하며, 백성들도 반대한다면, 가정 내의 일을 하는 데는 길하지만 조정의 일을 하는 데는 흉합니다. 거북점과 시초점의 결과가 모두 사람들의 의견과 다르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길하고 일을 도모하는 것은 흉합니다.

○八庶徵은 曰雨와 曰晴과 曰燠과 曰寒과 曰風과 曰時니 五者來備하되 各以其敍하면 庶草도 蕃庶하리라 一이 極備하여도 凶하며 一이 極無하여도 凶하나라 曰休徵은 曰肅에 時雨若하며 曰乂에 時暘이 若하며 曰哲에 時燠이 若하며 曰謀에 時寒이 若하며 曰聖에 時風이 若하며 曰咎徵은 曰狂에 恒雨若하며 曰僭에 恒暘이 若하며 曰豫에 恒燠이 若하며 曰急에 恒寒이 若하며 曰蒙에 恒風이 若이니라 曰王省은 惟歲요 卿士는 惟月이요 師尹은 惟日이니라 歲月日에 時無易하면 百穀用成하며 乂用明하며 俊民用章하며 家用平康하리라 日月歲에 時既易하면 百穀用不成하며 乂用昏不明하며 俊民이 用微하며 家用不寧하리라 庶民은 惟星이니 星有好風하며 星有好雨니라 日月之行은 則有冬有夏하니 月之從星으로 則以風雨니라

여덟번째는 여러 가지 징조입니다. 비가 오고, 맑게 개고, 따뜻하고, 추우며, 바람이 부는 것과 때에 맞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기상 현상이 일년 중에) 모두 오고 또 각각의 기상 현상이 모두 응당 발생해야 하는 순서에 따라 발생한다면 모든 초목이 번성할 것입니다.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가 지나치게 많으면 흉하며,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가 지나치게 적으면 흉합니다. 좋은 징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천자가) 엄숙하면 때에 맞게 비가 오고, (천자가) 치국의 재간이 있다면 때에 맞게 맑으며, (천자가) 지혜로우면 때에 맞게 따뜻하고, (천자가) 計謀가 있다면 때에 맞게 추우며, (천자가) 사리에 밝으면 때에 맞게 바람이 불니다. 나쁜 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자가) 狂妄하면 오랫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천자가) 差錯하면 오랫동안 맑고 비가 오지 않으며, (천자가) 편안히 놀기만 좋아하면 오래도록 따뜻하며, (천자가) 엄혹하고 급박하면 오래도록 추우며, (천자가) 어리석으면 오래도록 바람이 멈추지 않습니다. 군주에 대해서는 일년의 사정으로 관찰하고, 경사에 대해서는 한 달의 사정으로 관찰하며, 사윤에 대해서는 하루의 사정

으로 관찰합니다. 일 년 내내, 한 달 내내, 하루 종일 그리고 사시 동안 정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았다면 백곡이 잘 익고, 정치도 밝아지며, 뛰어난 인재도 현달하게 되고, 국가도 태평하고 편안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일 년 내내 정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면 백곡이 잘 익지 않고, 정치도 밝아지지 않으며, 뛰어난 인재도 미미하게 되고, 국가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상징은 별인데 별에는 바람을 좋아하는 것이 있고 별에는 비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와 달의 운행하면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지만(천자와 경사가 국가 대사를 완수함을 의미한다) 달이 별을 만나면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립니다(백성들이 비록 미천하지만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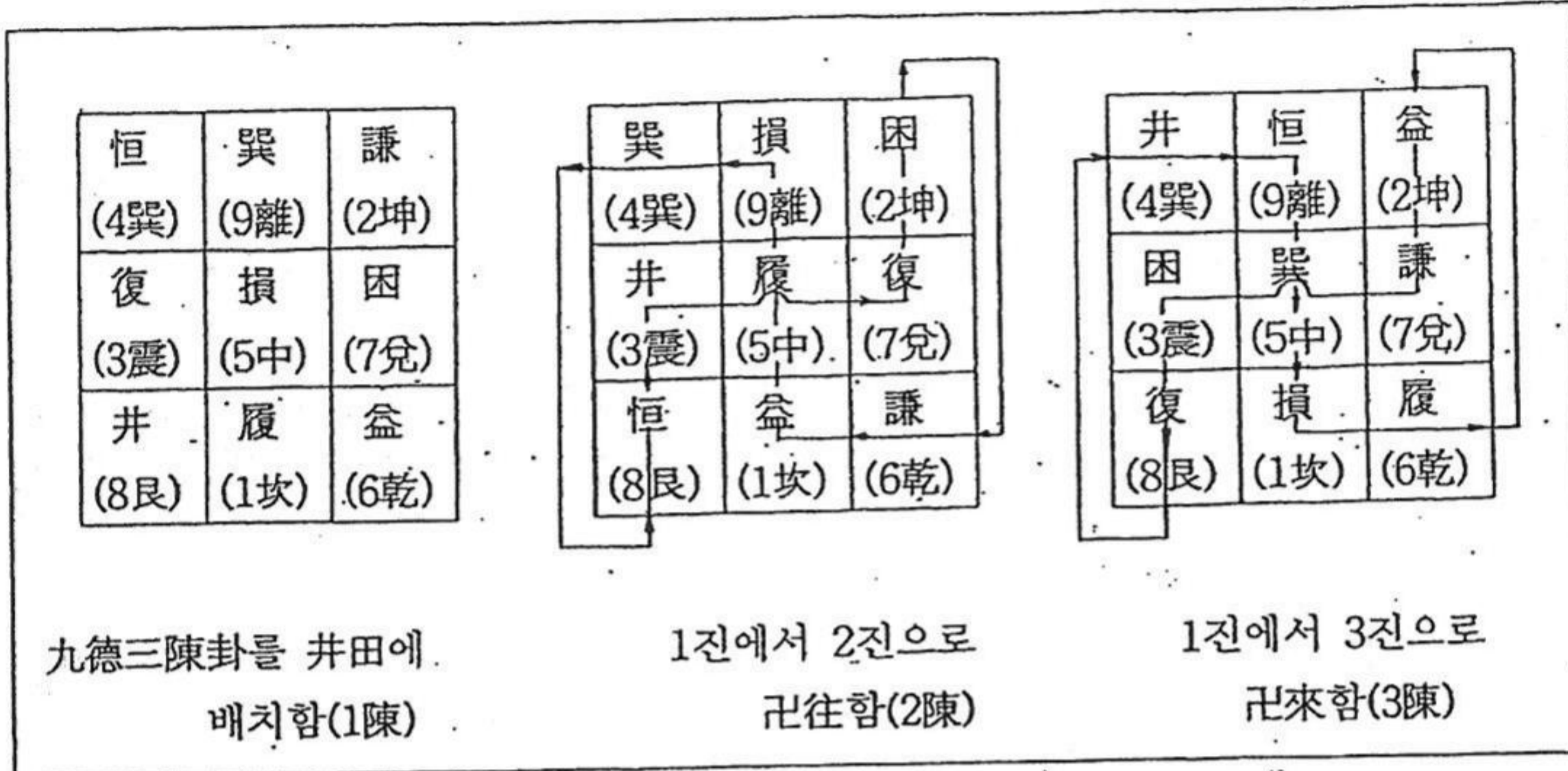
○九五福은 一曰壽요 二曰富요 三曰康寧이요 四曰攸好德이요 五曰考終命이니라 六極은 一曰凶短折이요 二曰疾이요 三曰憂요 四曰貧이요, 五曰惡이요 六曰弱이니라

아홉번째는 다섯 가지 복(과 여섯 가지 곤궁)입니다. 하나는 장수하는 것이며, 둘은 부유한 것이고, 셋은 건강하고 편안한 것이며, 넷은 좋은 덕을 함양하는 것이며, 다섯은 늙어서 善終하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 곤궁은 다음과 같습니다. 횡사하거나 요절하는 것이며, 둘은 병이 나는 것이며, 셋은 근심 걱정하는 것이며, 넷은 가난한 것이며, 다섯은 악을 저지르는 것[過惡]이며, 여섯은 몸이 쇠약한 것이다.

11. 보충자료2

[구덕삼진괘(九德三陳卦)]

* 구덕삼진괘를 오행을 이루는 순서에 맞추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1·6水 : 履(1坎)는 5의 자리(中宮)로 往했다가(2陳), 6의 자리(乾)로 來하여(3陳) 완성한다(履는 德之基也, 履는 和而至, 履以和行). 즉 一貫五中하여 물(水)의 덕을 이루어 井田의 터를 닦는 것이니, 九宮五德이라고 한다.
- 2) 2·7火 : 謙(2坤)은 6의 자리(乾)로 往했다가(2진), 7의 자리(兌)로 來하여 완성한다(謙은 德之柄也, 謙은 尊而光, 謙以制禮). 즉 하늘이 1·6水하여 6乾에서 水를 완성하였으므로, 땅(2坤)은 이 완성한 수의 기운을 받아(2진때 6乾을 거침) 7兌에서 불의 기운을 완성하는 것이다.
 * 1·6水和 2·7火를 이름으로써 하늘의 用인 水와, 땅의 用인 火가 그 쓰임을 발휘하게 된다. 상경이 水의 體卦인 坎과 火의 體卦인 離로 끝나고, 하경이 水와 火의 사귀인 既濟·未濟로 끝남도 천지의 가장 큰 쓰임은 水와 火인 까닭이다.
- 3) 3·8木 : 復(3震)은 7의 자리(兌)로 往했다가(2진), 8의 자리(艮)로 來하여 완성한다(復은 德之本也, 復은 小而辨於物, 復以自知). 2·7火가 7兌에서 완성하니, 하늘은 다시 3震에서 시작하여 火의 완성 기운인 7兌를 받아(2陳에서 7兌자리로 가서 기운을 받음) 8艮에서 木의 기운을 완성한다.
- 4) 4·9金 : 恒(4巽)은 8의 자리(艮)로 往했다가(2陳), 9의 자리(離)로 來하여(3陳) 완성한다(恒은 德之固也, 恒은 雜而不厭, 恒以一德). 木도가 완성됨으로써 天地人 三才의 대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三才중 특히 木의 기운을 항구히 하기위해 金의 기운이 필요하다. 목기운이 艮土로 들어갔다 離火의 단련을 받아 순일한 金의 단함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또 하늘이 3·8木을 완성함에, 땅이 4巽에서 시작하여 8艮에서 완성한 木기운을 받아(恒卦는 2陳에서 8艮으로 가서 기운을 받음) 9離에서 金기운을 완성한다. 恒卦는 상괘가 震(陽木)이고 하괘가 巽(陰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호괘가 澤天夬卦인데, 夬는 상괘가 兌(陰金)이고 하괘가 乾(陽金)이므로, 恒卦는 木으로 구성되어 있되 그 안에 金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5) 5·10土 : 損(5中)은 9의 자리(離)로 艮往했다가(2진), 1의 자리(坎)로 艮來하여(3진) 완성한다(損은 德之修也, 損은 先難而後易, 損以遠害). 土는 中德이다. 따라서 땅의 用인 火와 하늘의 用인 水를 거쳐 완성하는 것이다. 또 땅이 4·9金을 완성함에, 하늘이 5中에서 시작하여 9離에서 완성한 금기운을 받아(損卦는 2陳에서 9離를 거쳐 감), 1坎에서 土기운을 완성한다.

* 이상으로써 오행이 완성되었다. 여기까지가 선천의 원리(生生之理)가 행하여지는 시점이다. 즉 火(謙卦)와 金(恒卦)은 아직 5中을 거치지 못했으므로, 뿌리라 할 수 있는 中德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선후천이 바뀔때 서로 交易(金火交易)을 하게 되면서 中德을 얻게 되니, 비로소 모든 오행이 中德을 갖추게 되어 조화를 이룰수 있게 되는 것이다.

6) 6·1水 : 益(6乾)은 1의 자리(坎)로 艮往했다가(2진), 2의 자리(坤)로 艮來하여 완성한다(益은 德之裕也, 益은 長裕而不設, 益以興利). 水의 생함은 하늘(乾)에서 시작했지만 그 功用은 땅(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益以興利).

* 履·謙·復·恒·損은 오행의 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陳을 거쳐 3陳에서 완성을 이루는 것이고, 益·困·井·巽은 오행의 用 즉 成의 과정이므로, 2陳에서 오행이 그 완성되고 3陳에서는 그 功과 用을 말하였다.

7) 7·2火 : 困(7兌)은 2의 자리(坤)로 艮往했다가(2진), 3의 자리(震)로 艮來하여 완성한다(困은 德之辨也, 困은 窮而通, 困以寡怨). 즉 2·7火로 완성된 불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 겨울의 어려움을 겪은후 봄이 되어 그 기운을 발하는 것이다. 火의 생함은 땅에서 시작되고 그 功用은 하늘의 生生하는 덕을 도와 동방에서 완성을 본다.

* 이상으로 물과 불이 用의 功을 이루니 만물이 生生의 도를 잇게 되는 것이다.

8) 8·3木 : 井(8艮)은 3의 자리(震)로 艮往했다가(2진), 4의 자리(巽)로 艮來하여 완성한다(井은 德之地也, 井은 居其所而遷, 井以辨義). 木의 도는 하늘의 生生하는 덕과 땅의 화육하는 공을 이어 완성하는 것이다. 艮에서 다시 회복하여(復) 震木으로 생하며, 그 진정한 井의 공은 巽木으로 이루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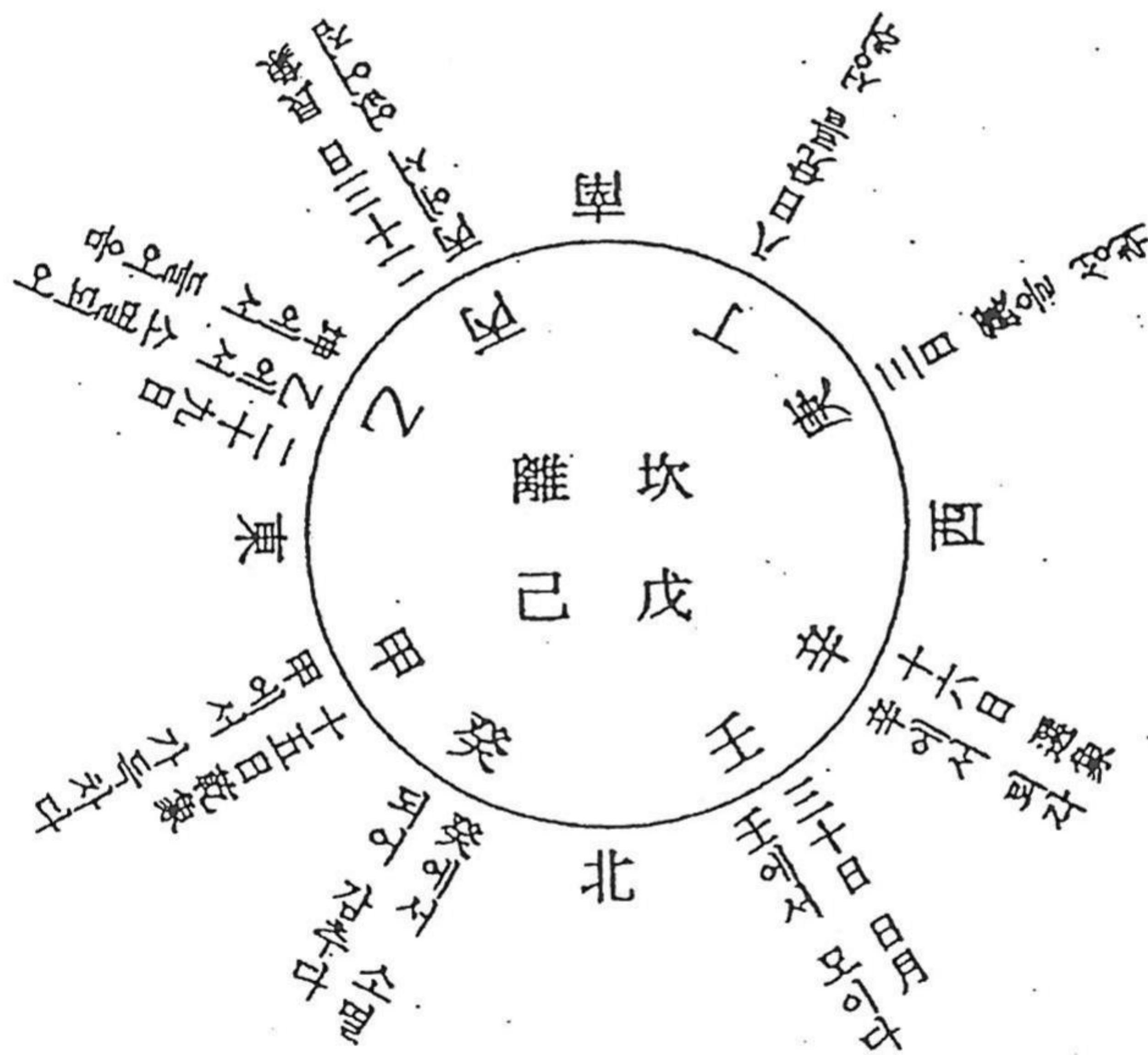
9) 9·4金 : 巽(9離)은 4의 자리(巽)로 艮往했다가(2陳), 5의 자리(中宮)로 艮來하여(3陳) 완성한다(巽은 德之制也, 巽은 稱而隱, 巽以行權). 4·9金으로 완성한 땅의 굳건한 기운은 三伏 동안 모두 108庚金을 감추었다가 후천을 맞이하여 肅殺之氣를 발하는 권세를 행하는 것이다(申命行事). 금의 단련된 기운은 巽의 덕으로 땅속으로 入하여 완성된다. 그 진정한 功은 中宮의 덕으로 만물을 다스리는데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선천에서 후천으로 되는 과정을 오행과 음양의 기운으로써 설명한 것이 바로 이 구덕삼진패라는 것을 살폈다. 이 과정에서 음양의 순환하는 길과 오행이 이루어지는 과정 및 그 쓰임이 이루어지는 방소가 설명되었고, 왜 후천의 때에 이르러 金火交易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108금을 감추었다가 후천의 때에 그 肅殺之氣로 行權하는 것이 申命行事라는 것도 언급이 되었다. 그 오묘한 이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치를 연구하는데 작은 단서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2. 보충자료3

[팔괘납갑도(八卦納甲圖)]

(魏伯陽, 『周易參同契』)



■ 납갑(納甲)이라고 하는 것은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 곧 육십갑자(六十甲子)를 팔괘(八卦)에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납갑자(納甲子)라고 해야 할 것을 약(略)하여 납갑이라고 한다. 경방(京房)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위백양(魏伯陽)에 이르러 처음으로 팔괘납갑(八卦納甲)에 달의 차고 비는 것을 덧붙여 이른바 월체납갑(月體納甲)을 만들고, 그것으로써 연단(煉丹)의 술(術)을 설하였다.

월체납갑(月體納甲)에서는 십간(十干)이 방위를 보이는 상(象)으로 이용되어, 갑을(甲乙)은 목(木), 동(東), 병정(丙丁)은 화(火), 남(南), 경신(庚辛)은 금(金), 서(西), 임계(壬癸)는 수(水), 북(北), 무기(戊己)는 중앙에 배당되지만, 또 팔괘(八卦)가 방위에 배당되어서, 거기다가 설괘전(說卦傳)에 보이는 것과 같은 후천방위(後天方位)나 한대(漢代)에 행해졌으리라고 생각되는 선천방위(先天方位)와는 다른 방위 배당을 행하고 있다. 곧 간(艮)과 태(兌)를 남(南)에, 진(震)과 손(巽)을 서(西)에, 건(乾)과 곤(坤)을 동(東)에, 감(坎)과 이(離)를 중앙에 배당하는 납갑방위이다.

東(甲乙) 건곤(乾坤)

南(丙丁) 간태(艮兌)

西(庚辛) 진손(震巽)

北(壬癸)

中央(戊己) 감리(坎離)

[북방(北方)은 동방(東方) 건곤(乾坤)과 중앙(中央) 감리(坎離)가 만나는 곳이므로 그것을 뻗다.]

월체납갑(月體納甲)은 달의 밝고 어둠과 차고 비는 것으로서 팔괘(八卦)의 형상을 잡아, 달이 보이는 방각(方角)을 가지고 받아들여지는 곳의 간(干)으로 한 것이다. 사흘날 저녁이 되어 초승달이 비로소 서쪽 경(庚)의 위

치에 나타나는 것은 진괘(震卦)☳ 일양(一陽)의 형상이다. 여드렛날 저녁이 되어 상현(上弦)의 달이 남쪽 정(丁)의 위치에 보이는 것은 태(兌)☱ 이양(二陽)의 형상이다. 보름날 저녁이 되어 달이 동쪽 갑(甲)의 위치에 동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건괘(乾卦)☰ 삼양(三陽)의 형상이다. 이상은 망전(望前)의 삼후(三候)로서 양(陽)이 살아나고 음(陰)이 꺼지는 달의 형상이다.

열엿새날 새벽이 되어 약간 그늘진 달이 서쪽 신(辛)의 위치로 물러나는 것은 손괘(巽卦)☴ 일음(一陰)의 형상이다. 스무사흘날 새벽이 되어 하현(下弦)의 달이 남쪽 병(丙)의 위치에 나타나는 것은 간괘(艮卦)☶ 이음(二陰)의 형상이다. 스무아흐렛날 새벽이 되어 달이 동쪽 을(乙)의 위치에서 없어지는 것은 곤괘(坤卦)☷ 삼음(三陰)의 형상이다. 이상은 망후(望後)의 삼후(三候)로서 음(陰)이 살아나고 양(陽)이 꺼지는 달의 형상이다.

1개월에는 여섯 후(候)가 있고, 5일을 일후(一候)로 한다. 그래서, 그믐날 저녁과 초하루 아침에 이르러 해와 달은 계(癸)의 위치에 숨고, 임(壬)의 위치에서 만나 음과 양이 서로 통한다. 해는 달의 음(陰)에 감응하여 속에 음백(陰魄)을 품고, 달은 해의 양(陽)을 받아 속에 양의 정(精)을 품는다. 그러므로 감괘(坎卦)의 중양(中陽)☵을 달의 형상이라 하고, 이괘(離卦)의 중음(中陰)☲을 해의 형상이라고 한다. 해와 달의 만남은 중궁(中宮)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감리(坎離)는 임계(壬癸)에 생겨서 무기(戊己)에 위치한다. [도표(圖表) 참조.]

경(庚). 3일, 명(明)을 생한다. 진(震)의 상(象).....	●☳
신(辛). 16일, 백(魄)을 생한다. 손(巽)의 상(象).....	○☴
갑(甲). 15일, 망(望). 건(乾)의 상(象).....	○☰
을(乙). 29일, 회(晦). 곤(坤)의 상(象).....	●☷
정(丁). 8일, 상현(上弦). 태(兌)의 상(象).....	○☱

병(丙). 23일, 하현(下弦). 간(艮)의 상(象)…… ㉑

임(壬). 초하루 아침에 서로 만나, 해 속에 음백(陰魄)을 품다.

이(離)의 상(象)…… ㉒

계(癸). 그믐날 저녁에 감추어 없어진다. 달 속에 양정(陽精)을 품다.

감(坎)의 상(象)…… ㉓

[혜동(惠棟) 역한학(易漢學)에 의한다.]

위백양(魏伯陽)의 월체납갑설(月體納甲說)을 빌려서 역사(易辭)를 해석한 것이 우번(虞翻)이다. 우번은 회계(會稽) 여요(余姚)의 사람인데, 팽효(彭曉)의 참동계해의서(參同契解義序)에 의하면, 위백양도 회계(會稽) 상우(上虞)의 사람으로 우번(虞翻)과 위백양(魏伯陽)은 한 고향 사람으로서 우번은 고향의 선배인 위백양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경전석문(經典釋文)의 역(易)자 아래에 ‘우번주참동계(虞翻注參同契)에 이르기를 자종일하월(字從日下月)’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우번에게는 참동계주(參同契注)의 저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번의 역주(易注)에 일(日)과 월(月)을 역(易)으로 한다는 설(說)도 위백양의 영향이다.

참동계(參同契) 팔괘납갑(八卦納甲)에 진(震)은 경(庚)을 받아들이고, 태(兌)는 정(丁)을 받아들이고, 건(乾)은 갑(甲)을 받아들이고, 손(巽)은 신(辛)을 받아들이고, 간(艮)은 병(丙)을 받아들이고, 곤(坤)은 을(乙)을 받아들이는 것을 설(說)하고는, 감(坎)이 무(戊)를 받아들이고, 이(離)가 기(己)를 받아들이는 것을 설하지 않은 것은, 감리(坎離)는 건곤(乾坤)의 이용(二用)으로서 육허(六虛)에 두루 홀려 왕래하며, 무기(戊己)는 곧 중궁(中宮)의 토(土)로서, 간다고 하여 있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장은 일월(日月)의 공용(功用)을 설하고, 천부(天

뒤지면 주군(主君)으로 되는 것이다. 또 4월(四月): 순양(純陽)인 건괘(乾卦)는 음기(陰氣)가 없어진다. 이것은 그 궤도(軌道)를 잃는 것이다. 그러나 5월이 되어 일음(一陰)이 비로소 생겨서 구(姤)가 된다. 이것은 뒤지면 주군(主君)으로 되는 것이다.

평탄(平坦)한 것으로서 그것이 언제까지나 기울지 않음이 없는 것은 천지 자연의 길이다. 음양의 소장(消長)과 성쇠(盛衰)는 서로 관련이 되어 용(用)을 이루는 것이다. 12소식괘(十二消息卦)는 곤(坤)에 이르러 끝나고, 끝이 나면 다시 복(復)으로부터 시작되며, 주류(周流)하여 멈추지 않는 것은 연환(連環)에 따라 다함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제왕(帝王)이 과연 능히 음양소식(陰陽消息)의 도(道)에 잘 따라서 정치를 행한다면 국가는 영구하게 계속되어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 [12소식괘도(十二消息卦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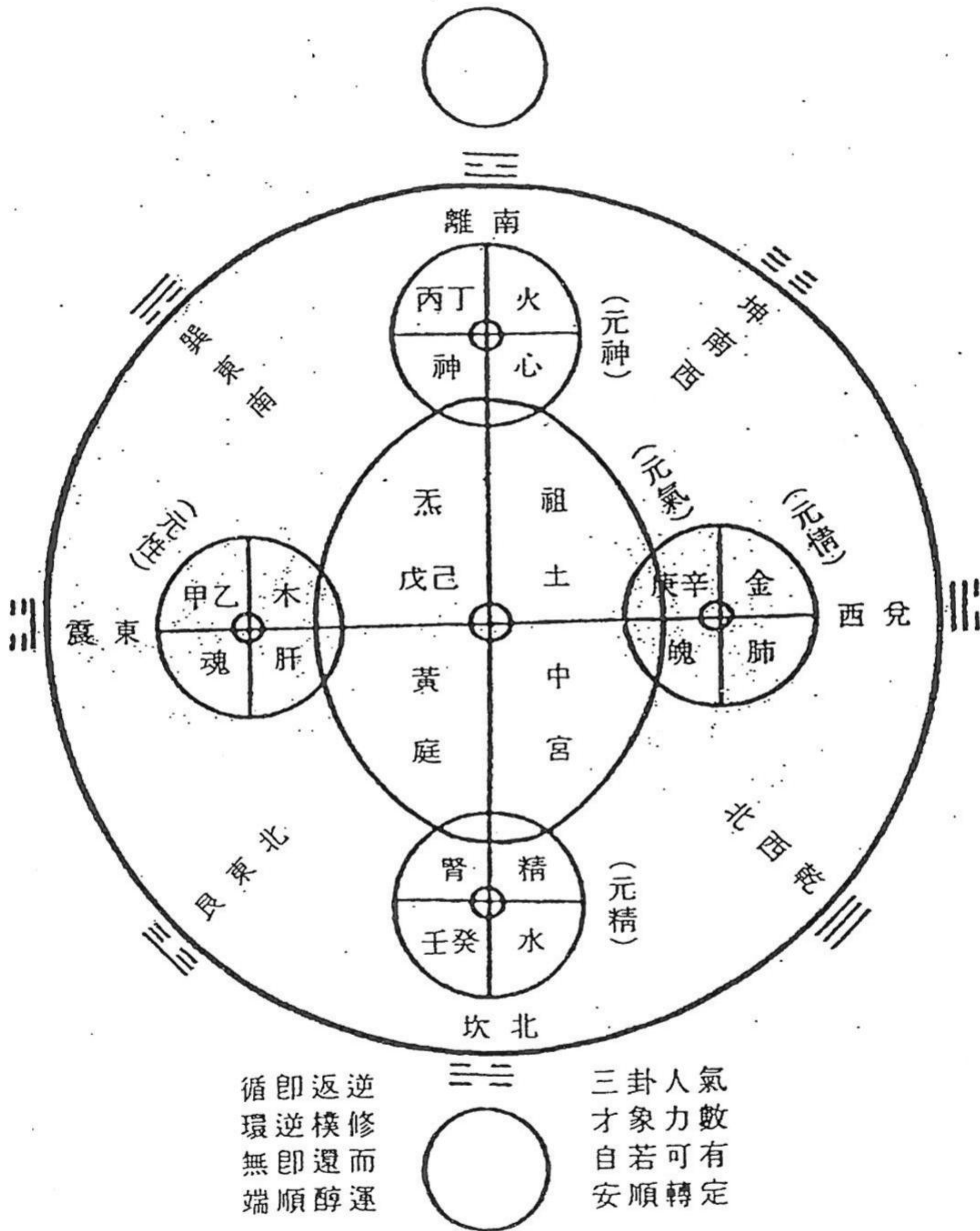


12소식괘(消息卦)	12개월	12진(辰)	12율(律)	24기(氣)
복(復)☱☵	11월	자(子)	황중(黃鍾)	동지(冬至) 소한(小寒)
임(臨)☱☳	12월	축(丑)	대려(大呂)	

태(泰)☰☷	정월	인(寅)	태주(太簇)	입춘(立春)
대장(大壯)☰☳	2월	묘(卯)	협종(夾鍾)	춘분(春分)
쾌(夬)☱☰	3월	진(辰)	고선(姑洗)	입하(立夏)
건(乾)☰☰	4월	사(巳)	중려(仲呂)	하지(夏至)
구(姤)☴☰	5월	오(午)	유빈(蕤賓)	입추(立秋)
둔(遯)☶☷	6월	미(未)	임종(林鍾)	추분(秋分)
비(否)☷☱	7월	신(申)	이척(夷則)	입동(立冬)
관(觀)☶☱	8월	유(酉)	남려(南呂)	
박(剝)☶☱	9월	술(戌)	무역(無射)	
곤(坤)☷☷	10월	해(亥)	응종(應鍾)	

이 장은 12벽괘(十二辟卦)를 음양소장(陰陽消長)의 증험(證驗)으로 하여 그 이치를 설명하였다.

팔괘오행순환유행도(八卦五行循環流行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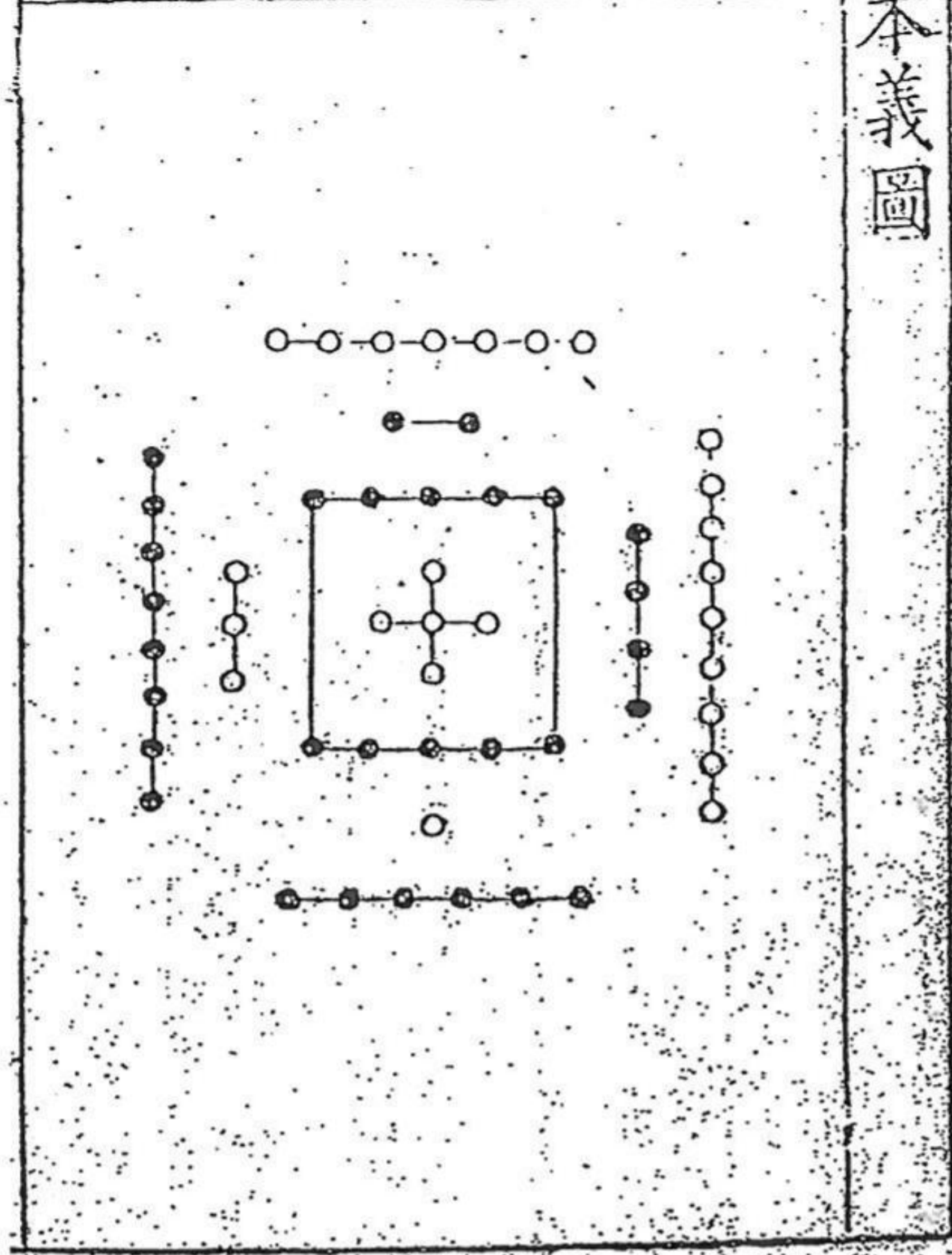
13. 보충자료4

[여러가지 도설(圖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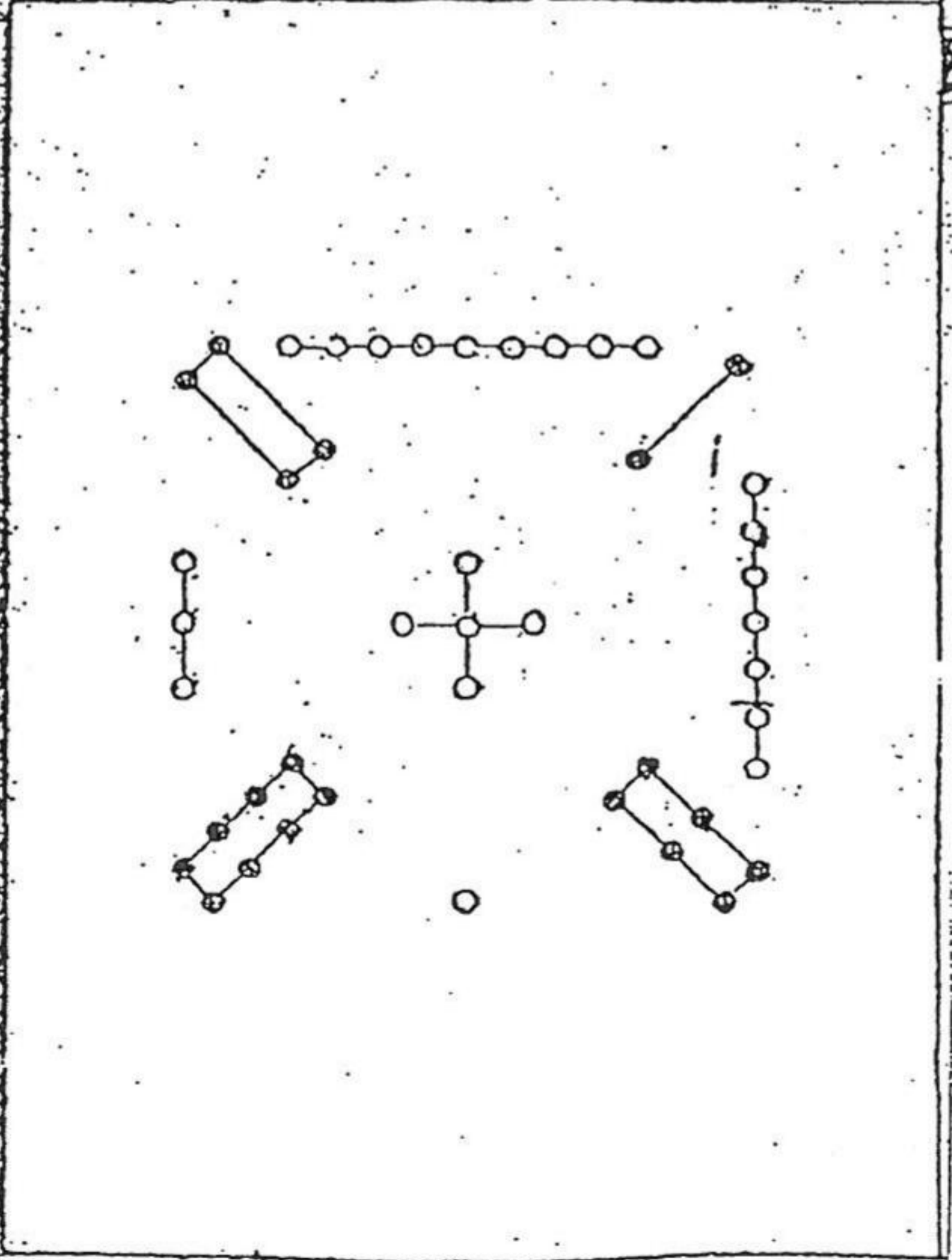
- ①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 ② 태극하도(太極河圖)
- ③ 하락총백도(河洛總百圖)
- ④ 복희팔괘도(伏羲八卦圖)와 문왕팔괘도(文王八卦圖)
- ⑤ 복희육십사괘차서도(伏羲六十四卦次序圖)
- ⑥ 복희육십사괘방위도(伏羲六十四卦方位圖)
- ⑦ 경세육십사수도도(經世六十四數圖)
- ⑧ 일정팔회도(一貞八悔圖)
- ⑨ 삼십육궁도(36宮圖)
- ⑩ 이십사절기방위도(24節氣方位圖)
- ⑪ 주천화후도(周天火候圖)
- ⑫ 서괘십팔절도(序卦十八節圖)
- ⑬ 괘변도(卦變圖)
- ⑭ 64괘의 순서와 명칭

河圖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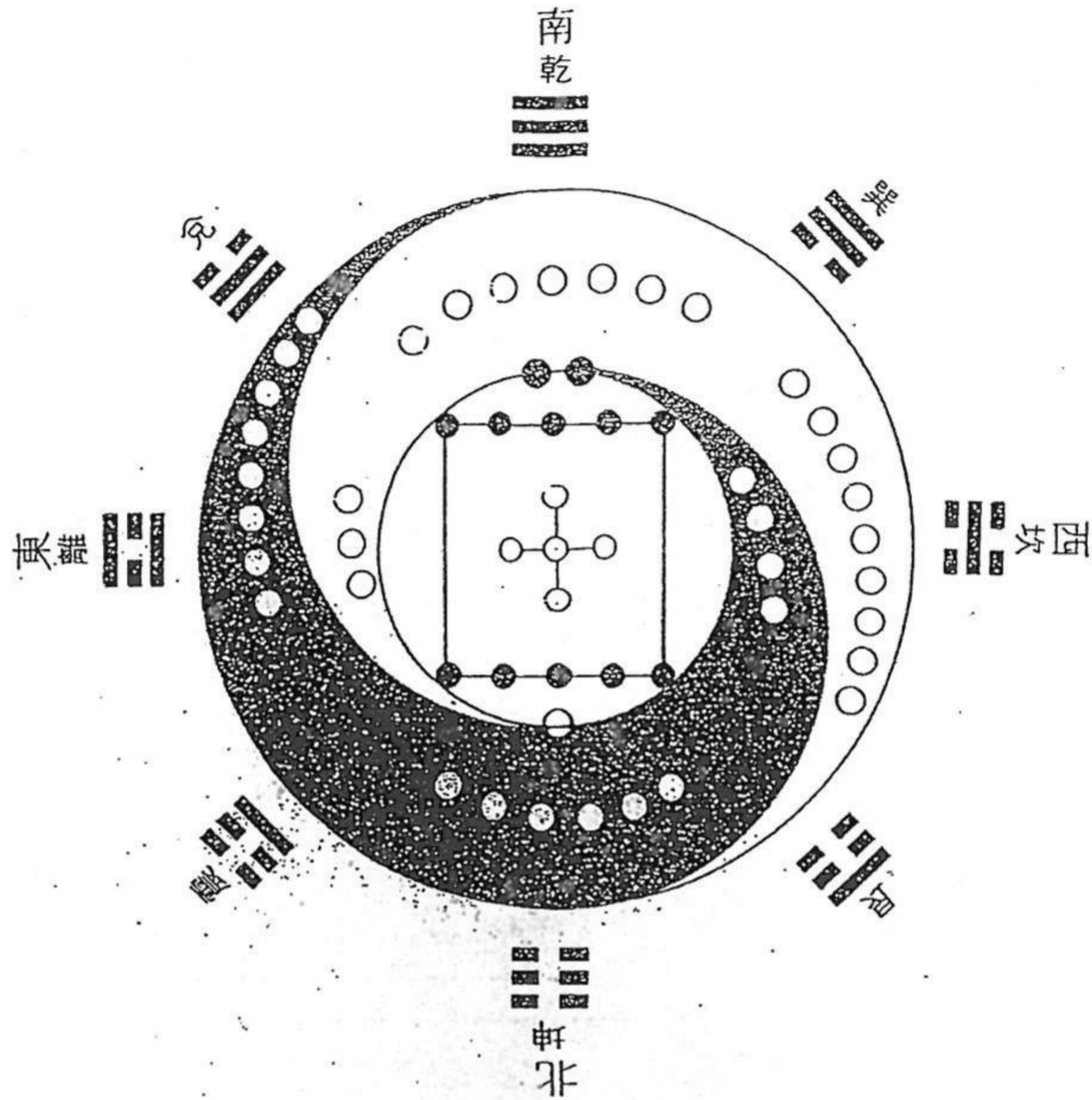
易本義圖



洛書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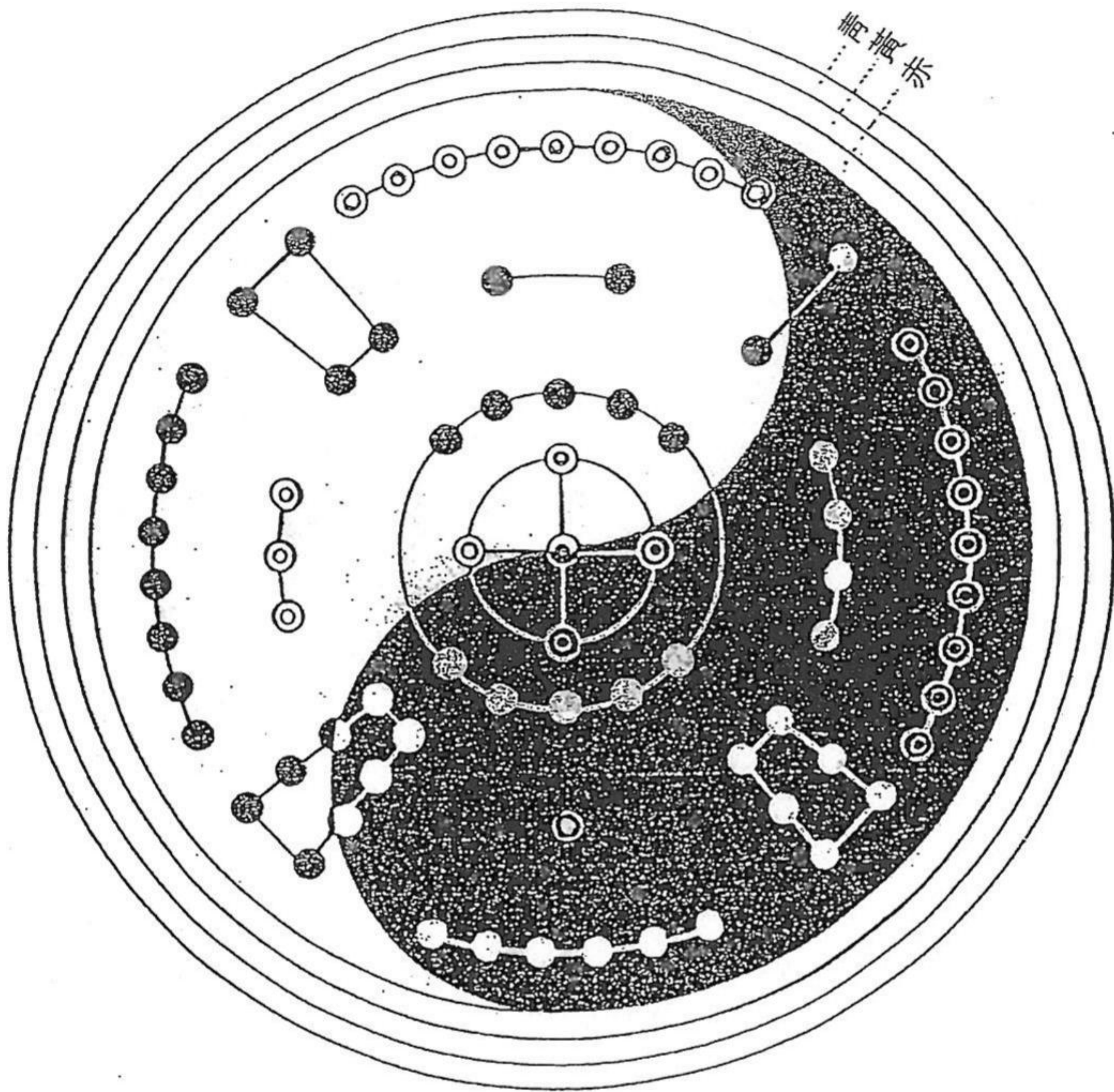


太極河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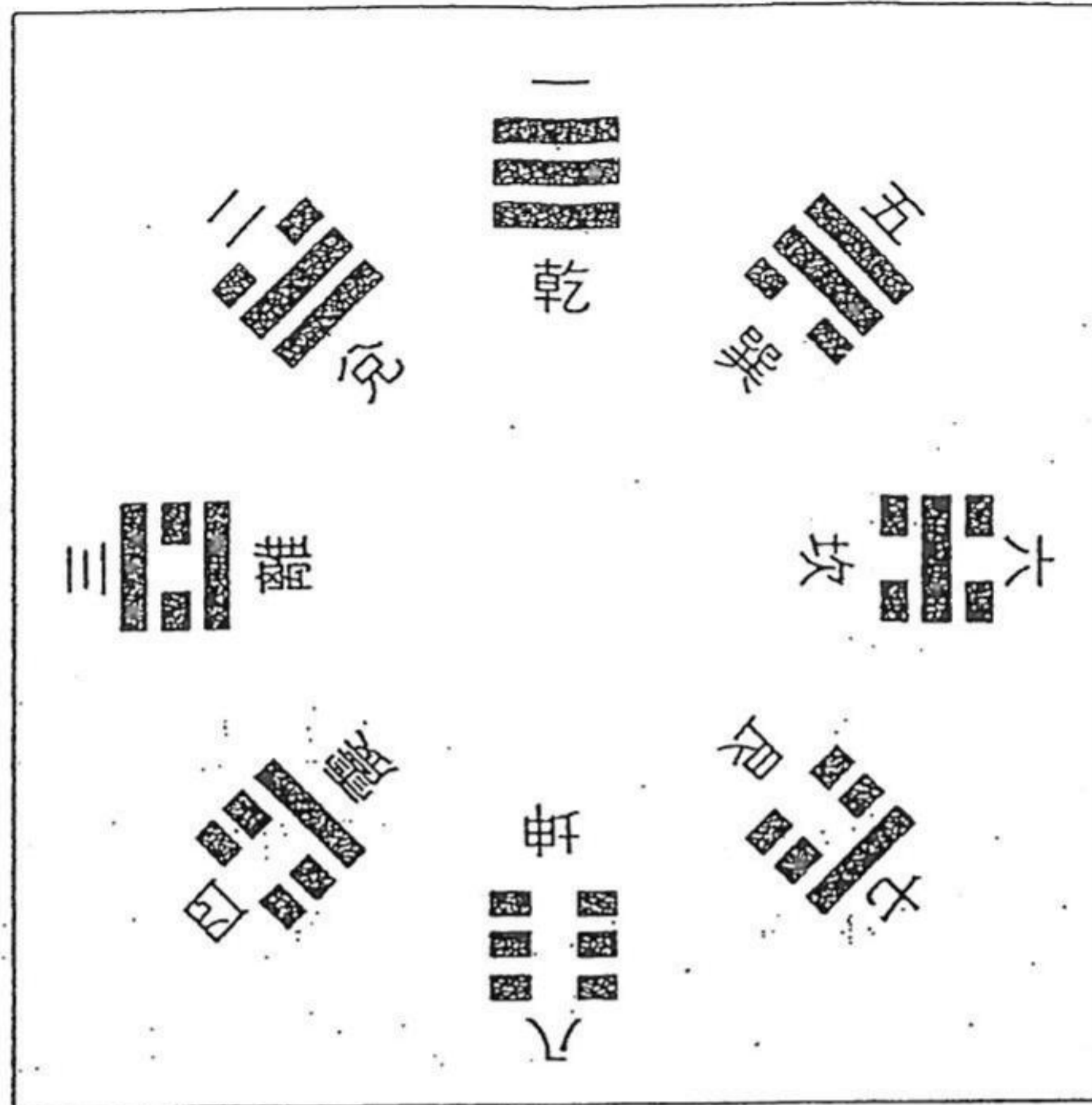
하도는 본체를 의미하므로 낙서와는 달리 8괘를 생성하는 근본원리가 담겨져 있다. 1·3·5·7·9는 양이 팽창하는 것이고, 10·8·6·4·2는 음이 응축하는 모습을 표상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만물의 기본 동작인 태극의 형태로 나타난다. 복희 선천팔괘 역시 태극운동에 기인하여 나오므로 하도와 부합하는 것이다. 하도와 8괘를 대비하면 5·10±는 태극의 씨알(有極)이며, 乾은 유극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양인 남방에, 兌는 아래로 2/3부분이 양이고 위로 1/3이 음인 동남방에, 震은 아래로 1/3은 양이고 위로 2/3는 음인 동북방에, 巽은 아래로 1/3은 음이고 위로 2/3는 양인 서남방에, 艮은 아래로 2/3는 음이고 위로 1/3은 양인 서북방에, 坤은 모든 부분이 음인 북방에 배당하며, 離와 坎은 음양이 각각 반인 동과 서에 배당하되, 동은 양이 커 나가는 방소이므로 離를, 서는 음이 성해나가는 방소이므로 坎을 배당한다. 현재 쓰이고 있는 태극은 用이므로 위 그림과는 운동방향이 반대다.

河洛總百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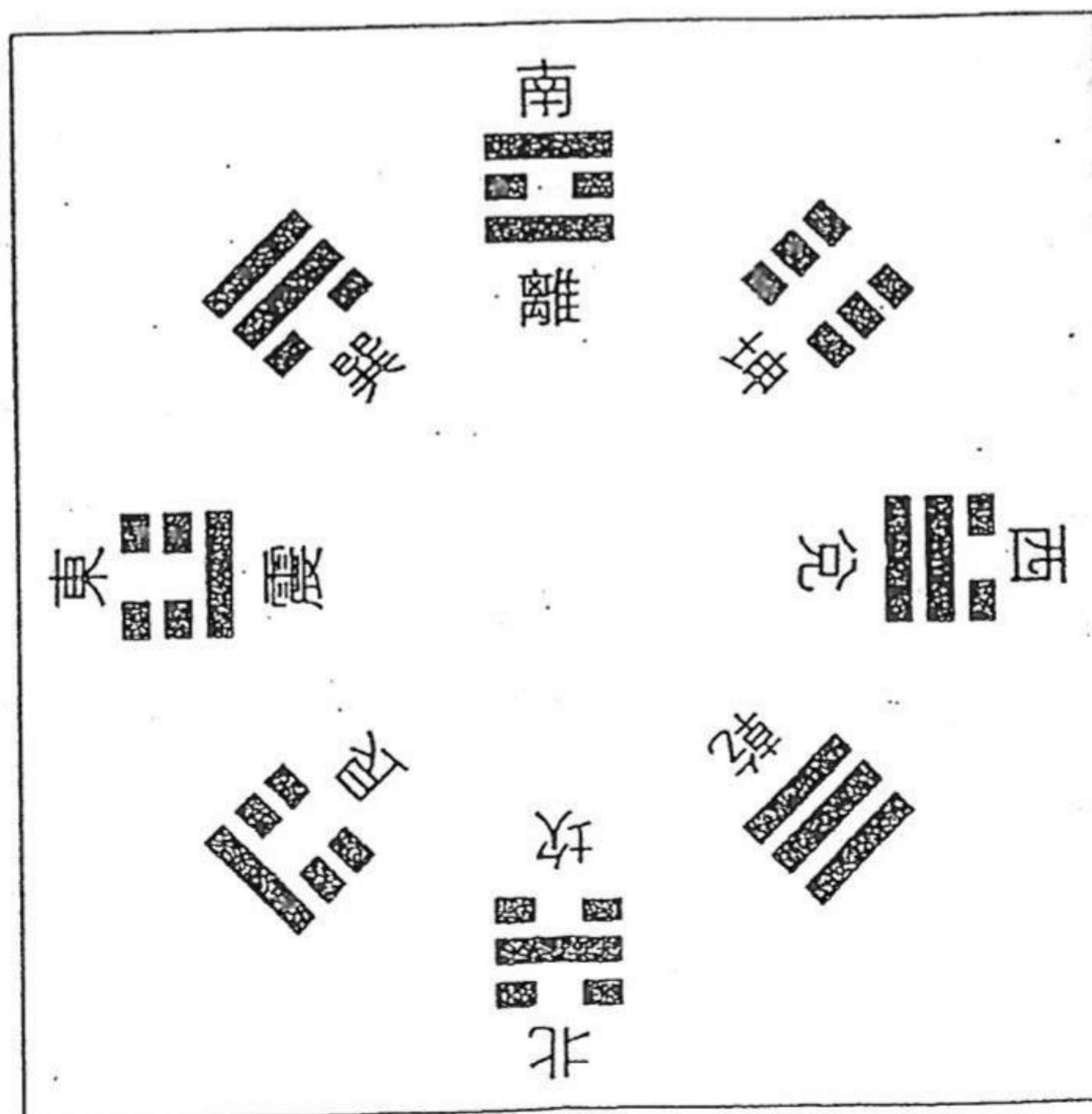


선천 하도의 1에서 10에 이르기까지 총합인 55(천지의 수)와, 후천낙서의 1에서 9에 이르는 九宮 총수 45를 합하면 모두 100이 된다. 하도는 오행이 상생하는 선천 원리의 바탕이며, 낙서는 오행이 상극하는 후천 작용의 근본이 되니 만물의 상극묘용은 하락의 총수인 100에 말미암는다. 한편 100을 둘로 나누어 평균한 50은 만물을 낳는 大衍數(四體)로서 태극으로부터 괘효가 나오는 모든 과정(揲蓍)이 이에 의거한다.

伏羲八卦方位之圖



文王八卦方位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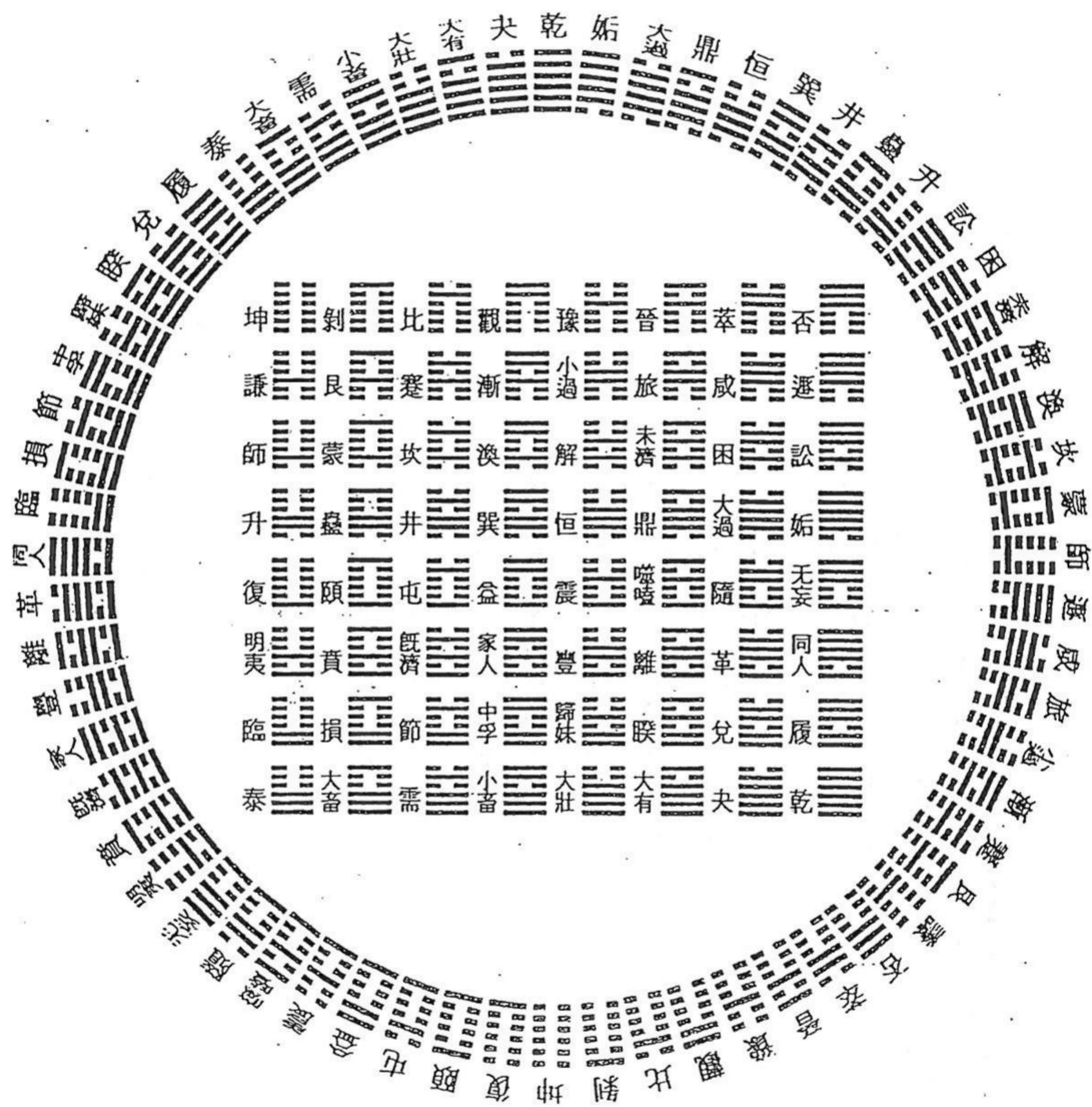


伏羲六十四卦次序之圖

復	頤	屯	益	震	噬嗑	隨	无妄	明夷	賁	既濟	家人	豐	離	革	同人	臨	損	節	中孚	歸妹	睽	兌	履	泰	大畜	需	小畜	大壯	大有	夬	乾																																		
																																		六十四																															
																																			三十二																														
																																			十六																														
				震							離							兌								乾									八卦																														
				少陰												太陽																									四象																								
				陽																																							兩儀																						
				太極																																																													

坤	剝	比	觀	豫	晉	萃	否	謙	艮	蹇	漸	小過	旅	咸	遯	師	蒙	坎	渙	解	未濟	困	訟	升	蠱	井	巽	恒	鼎	大過	姤																																		
																																			六十四																														
																																				三十二																													
																																				十六																													
				坤							艮							坎								巽										八卦																													
				太陰												少陽																									四象																								
				陰																																						兩儀																							
				太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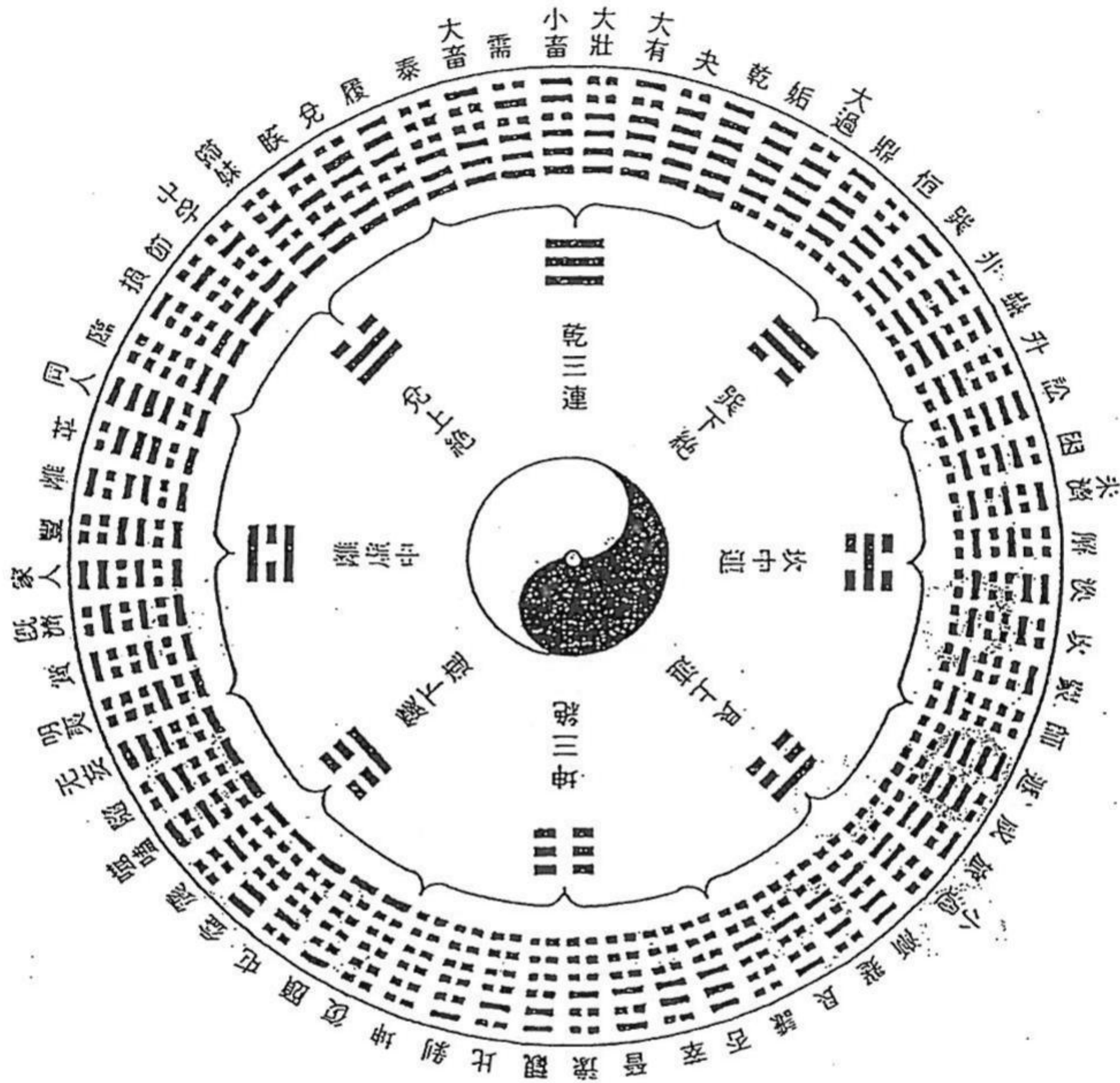
伏羲六十四卦方位之圖



經世平西卦數圖
天師圖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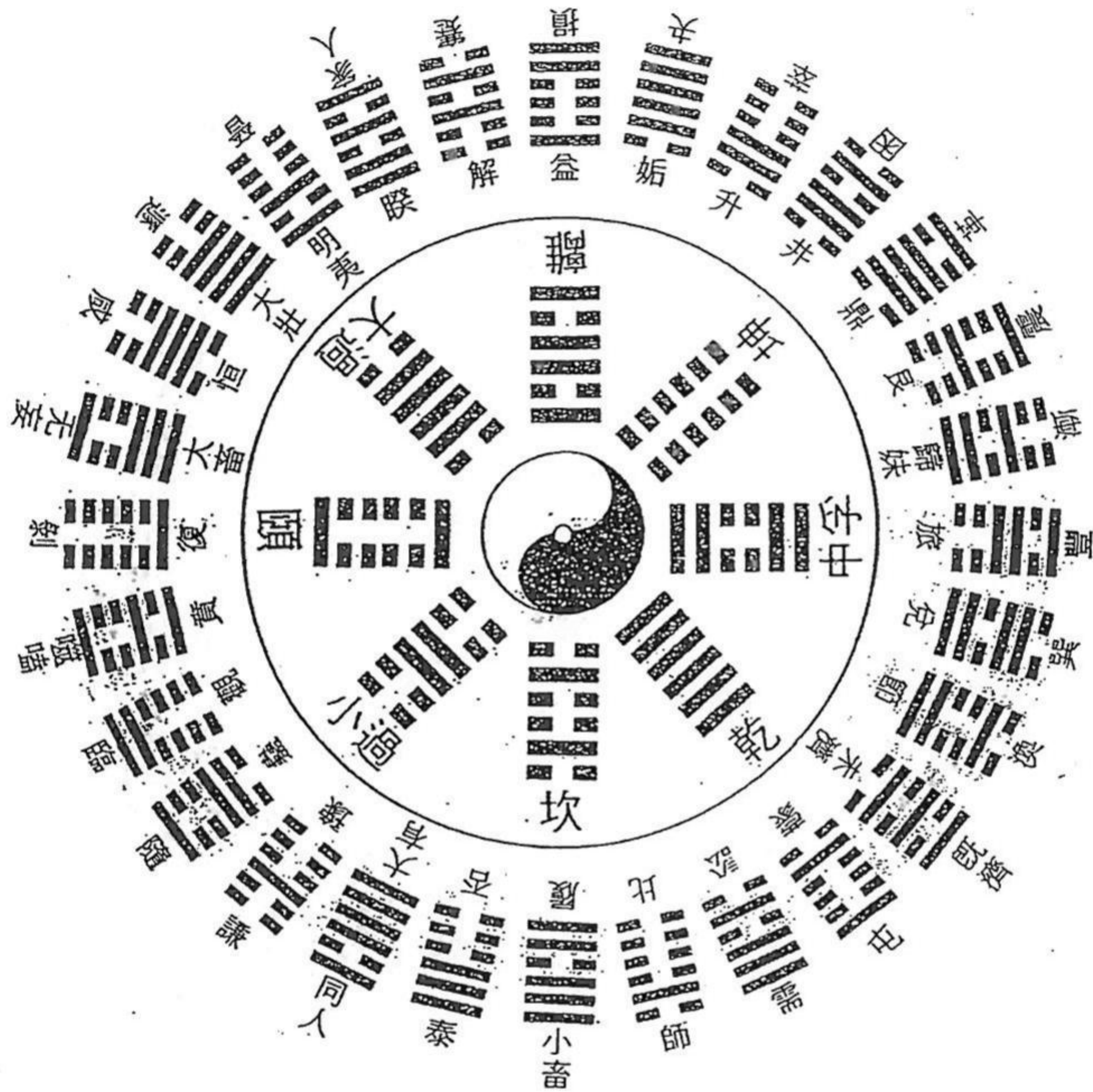


一貞八悔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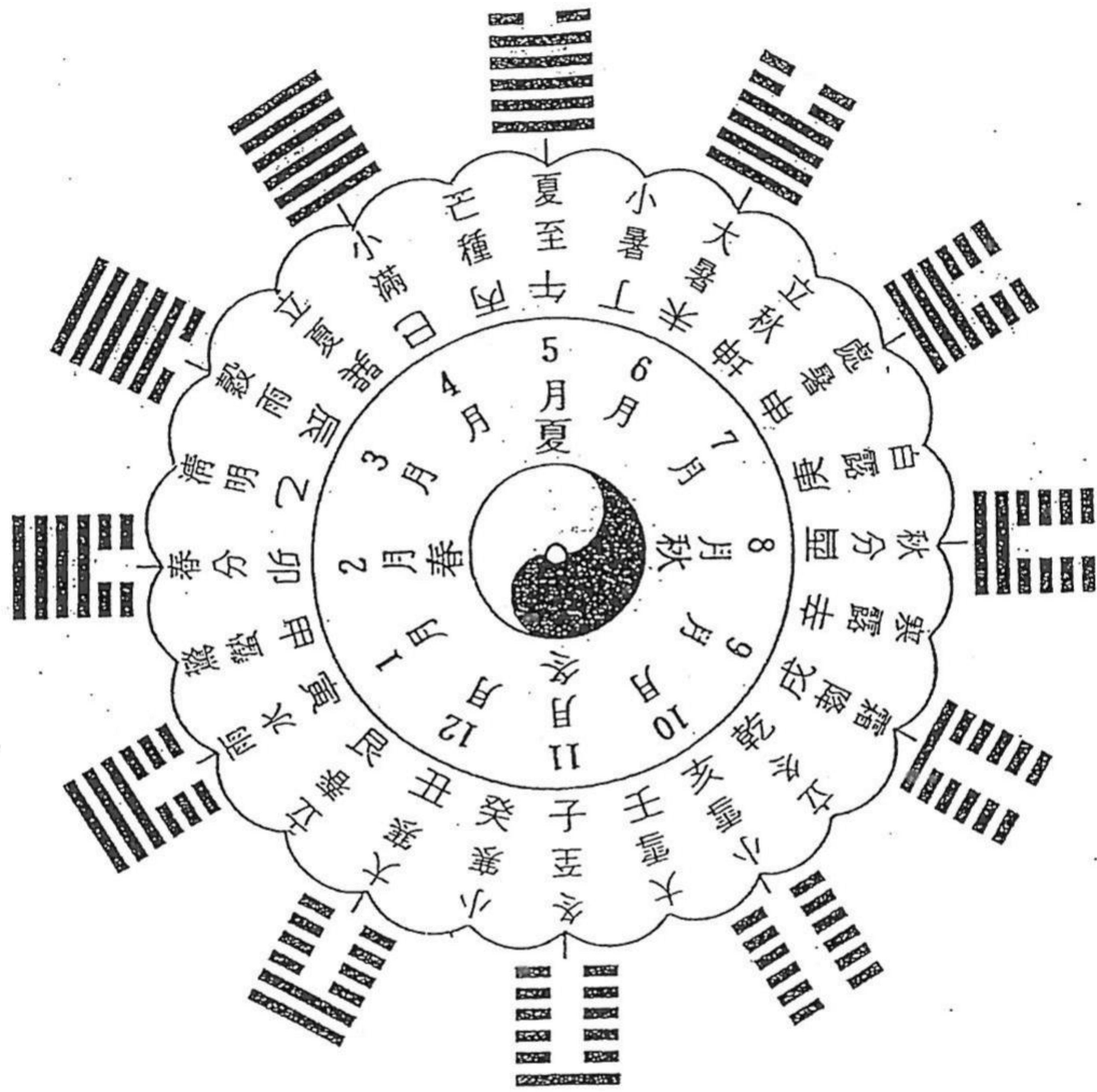
복희 64괘의 생성 원리이자, 대성괘의 생성 원리이다. 위의 그림과 같이 乾(☰)을 밑에 두고 8괘를 차례로 배열하면, 건·쾌·대장·소축·수·대축·태의 여덟괘가 나오고, 兌(☱)를 밑에 두고 8괘를 차례로 배열하면, 리·태·규·귀매·중부·절·손·림의 여덟괘가 나온다. 이러한 방법으로 8괘를 여덟번 반복하여 64괘를 얻는 방법을 일정팔회라고 한다. 즉 기본이 되는 아랫괘는 그대로 있고(一貞), 위에만 여덟번을 바꾸어(八悔) 8x8=64괘를 이루는 것이다.

36 宮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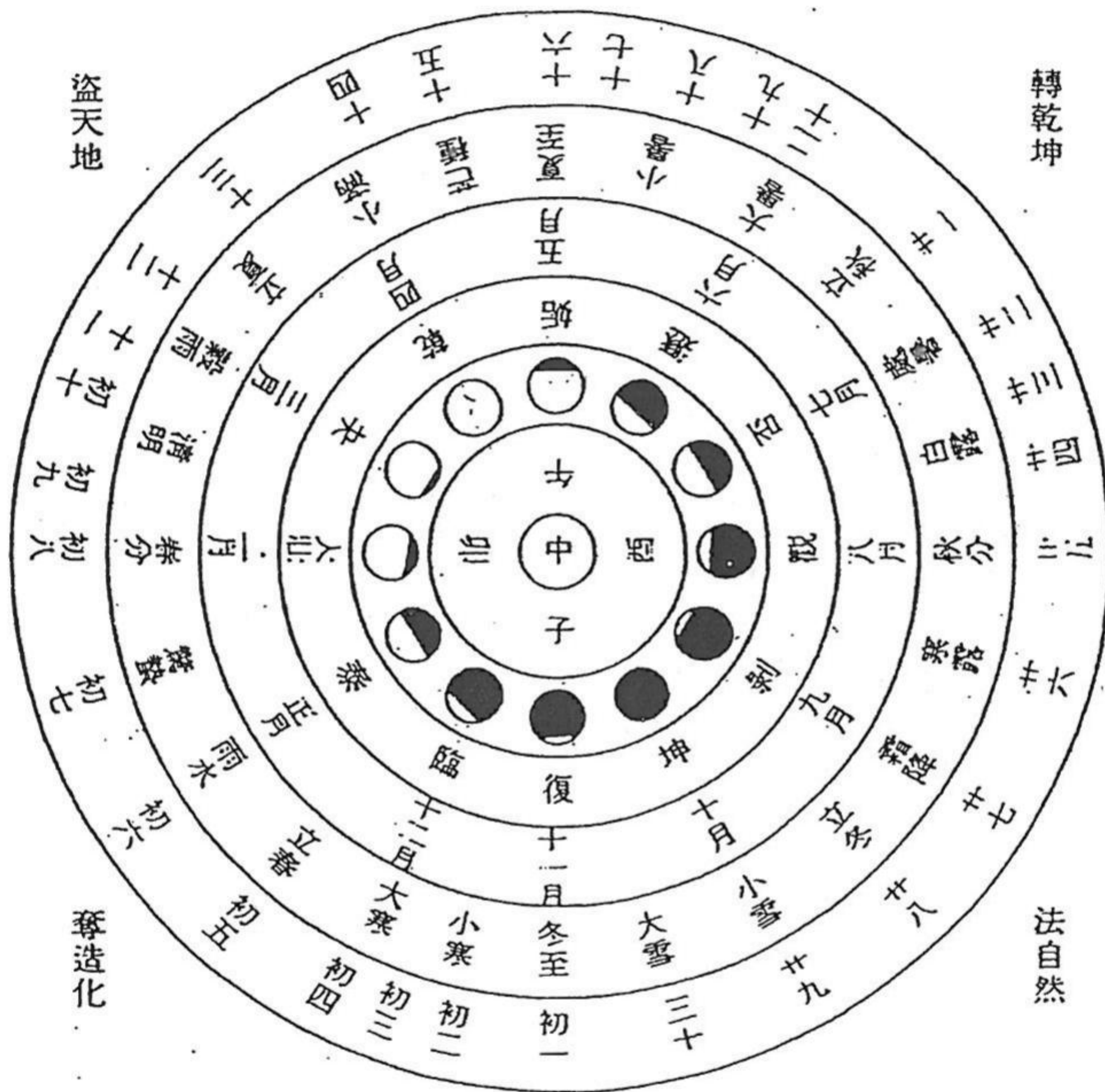


64괘는 모두 8괘(乾·坤·頤·大過·坎·離·中孚·小過)의 부도전괘와, 28괘(56괘는 도전을 이루고 있으므로 실제는 28괘)의 도전괘로써 나타낸다. 上圖는 안으로 문왕후천팔괘에 의거하여 부도전괘를 배열하고(부도전괘의 내괘가 후천팔괘와 합치됨), 밖으로 주역의 순서에 따라 28개의 도전괘를 베풀어 놓았다.

24節氣方位圖



주천화후도(周天火候圖)



◎ 序卦 十八節圖

師 (☰☷) $36 \times 1 + 24 \times 5 = 156 (+12 = \text{소양})$ 比 (☶☱) $36 \times 5 + 24 \times 1 = 204 (-12 = \text{소음})$ 履 (☱☰) $168 + 192 = 360 (\text{책})$	屯 (☶☳) $36 \times 2 + 24 \times 4 = 168 (\text{소양})$ 蒙 (☶☱) $36 \times 4 + 24 \times 2 = 192 (\text{소음})$ 需 (☵☱) $168 + 192 = 360 (\text{책})$	乾 (☰☰) $36 \times 6 = 216 (\text{책, 노양})$ 坤 (☷☷) $24 \times 6 = 144 (\text{책, 노음})$ $216 + 144 = 360 (\text{책})$
臨 (☷☳) $36 \times 2 + 24 \times 4 = 168 (\text{소양})$ 觀 (☶☱) $36 \times 3 + 24 \times 3 = 180 (+12 = \text{소음})$ 噬嗑 (☲☲) $168 + 192 + 360 (\text{책})$	謙 (☶☱) $36 \times 1 + 24 \times 5 = 156 (+12 = \text{소양})$ 豫 (☱☳) $36 \times 3 + 24 \times 3 = 180 (+12 = \text{소음})$ 隨 (☱☳) $168 + 192 = 360 (\text{책})$	泰 (☰☷) $36 \times 3 + 24 \times 3 = 180 (-12 = \text{소양})$ 否 (☷☰) $36 \times 5 + 24 \times 1 = 204 (-12 = \text{소음})$ 同人 (☲☱) $168 + 192 = 360 (\text{책})$ 大有 (☲☱)
坎 (☵☵) $36 \times 2 + 24 \times 4 = 168 (\text{소양})$ 離 (☲☲) $36 \times 4 + 24 \times 2 = 192 (\text{소음})$ $168 + 192 = 360 (\text{책})$	頤 (☶☱) $36 \times 2 + 24 \times 4 = 168 (\text{소양})$ 大過 (☱☲) $36 \times 4 + 24 \times 2 = 192 (\text{소음})$ $168 + 192 = 360 (\text{책})$	剝 (☶☱) $36 \times 1 + 24 \times 5 = 156 (+12 = \text{소양})$ 復 (☱☳) $36 \times 4 + 24 \times 2 = 192 (\text{소음})$ 无妄 (☲☱) $168 + 192 = 360 (\text{책})$ 大畜 (☶☰)
蹇 (☵☶) $36 \times 2 + 24 \times 4 = 168 (\text{소양})$ 解 (☵☲) $36 \times 3 + 24 \times 3 = 180 (+12 = \text{소음})$ 損 (☶☱) $168 + 192 = 360 (\text{책})$ 益 (☱☲)	晉 (☱☳) $36 \times 2 + 24 \times 4 = 168 (\text{소양})$ 明夷 (☱☲) $36 \times 4 + 24 \times 2 = 192 (\text{소음})$ 家人 (☴☲) $168 + 192 = 360 (\text{책})$ 睽 (☱☲)	咸 (☶☱) $36 \times 3 + 24 \times 3 = 180 (-12 = \text{소양})$ 恒 (☱☳) $36 \times 4 + 24 \times 2 = 192 (\text{소음})$ 遯 (☶☱) $168 + 192 = 360 (\text{책})$ 大壯 (☱☳)
震 (☳☳) $36 \times 2 + 24 \times 4 = 168 (\text{소양})$ 艮 (☶☶) $36 \times 3 + 24 \times 3 = 180 (+12 = \text{소음})$ 漸 (☴☳) $168 + 192 = 360 (\text{책})$ 歸妹 (☵☱)	困 (☱☵) $36 \times 3 + 24 \times 3 = 180 (-12 = \text{소양})$ 井 (☴☵) $36 \times 4 + 24 \times 2 = 192 (\text{소음})$ 革 (☱☲) $168 + 192 = 360 (\text{책})$ 鼎 (☲☱)	夬 (☱☰) $36 \times 5 + 24 \times 1 = 204 (-12 = \text{소음})$ 姤 (☴☱) $36 \times 2 + 24 \times 4 = 168 (\text{소양})$ 萃 (☱☲) $192 + 168 = 360 (\text{책})$ 升 (☴☳)
小過 (☴☱) $36 \times 2 + 24 \times 4 = 168 (\text{소양})$ 既濟 (☵☲) $36 \times 3 + 24 \times 3 = 180 (+12 = \text{소음})$ 未濟 (☲☵) $168 + 192 = 360 (\text{책})$	渙 (☴☱) $36 \times 3 + 24 \times 3 = 180 (-12 = \text{소양})$ 節 (☱☳) $36 \times 4 + 24 \times 2 = 192 (\text{소음})$ 中孚 (☴☱) $168 + 192 = 360 (\text{책})$	豐 (☱☲) $36 \times 3 + 24 \times 3 = 180 (-12 = \text{소양})$ 旅 (☷☲) $36 \times 4 + 24 \times 2 = 192 (\text{소음})$ 巽 (☴☴) $168 + 192 = 360 (\text{책})$ 兌 (☱☱)

									周易大全卷首											
大有																				

凡五陰五陽之卦各六皆有夬剝來一陰一陽固已見前

周易大全卷首

本

卦變圖 志傳或以卦變為說今作此圖以明之蓋易中之一義非並卦作場之本指也

凡一陰一陽之卦各六皆自復姤而來 五陰五陽卦同圖異

凡二陰二陽之卦各十有五皆自臨遯而來 四陰四陽卦同圖異

剝	比	大有	小畜	履	同人	姤
坤	師	同人	同人	同人	同人	同人
屯	震	震	震	震	震	震
坎	解	解	解	解	解	解
艮	小過	小過	小過	小過	小過	小過
萃	臨	臨	臨	臨	臨	臨

周易大全卷首

五十八

凡三陰三陽之卦各二十皆自泰否而來

觀	鼎	巽	訟	遯
革	離	家人	无妄	
兌	睽	中孚		
需	大畜			
大壯				

凡四陰四陽之卦各十有五皆自大壯觀而來 二陰二陽圖已見前

益	井	恒	漸	旅	渙	未濟	革	益
益	井	恒	漸	旅	渙	未濟	革	益
益	井	恒	漸	旅	渙	未濟	革	益
益	井	恒	漸	旅	渙	未濟	革	益
益	井	恒	漸	旅	渙	未濟	革	益
益	井	恒	漸	旅	渙	未濟	革	益

周易大全卷首

五十九

凡四陰四陽之卦各十有五皆自大壯觀而來 二陰二陽圖已見前

恒	隨	既濟	睽	益
恒	隨	既濟	睽	益
恒	隨	既濟	睽	益
恒	隨	既濟	睽	益
恒	隨	既濟	睽	益
恒	隨	既濟	睽	益

64卦의 명칭과 순서

(上經 30卦)

순	괘	이름	순	괘	이름	순	괘	이름	순	괘	이름
1	☰	중천건 (重天乾)	2	☷	중지곤 (重地坤)	3	☵☳	수뢰둔(준) (水雷屯)	4	☶☵	산수몽 (山水蒙)
5	☵☰	수천수 (水天需)	6	☵☱	천수송 (天水訟)	7	☷☵	지수사 (地水師)	8	☵☷	수지비 (水地比)
9	☴☰	풍천소축 (風天小畜)	10	☱☵	천택리 (天澤履)	11	☷☰	지천태 (地天泰)	12	☰☷	천지비 (天地否)
13	☰☲	천화동인 (天火同人)	14	☲☰	화천대유 (火天大有)	15	☷☶	지산겸 (地山謙)	16	☳☶	뇌지예 (雷地豫)
17	☵☳	택뢰수 (澤雷隨)	18	☶☴	산풍고 (山風蠱)	19	☷☵	지택림 (地澤臨)	20	☴☷	풍지관 (風地觀)
21	☲☳	화뢰서함 (火雷噬嗑)	22	☶☲	산화비 (山火賁)	23	☶☱	산지박 (山地剝)	24	☱☳	지뢰복 (地雷復)
25	☰☳	천뢰무망 (天雷无妄)	26	☶☰	산천대축 (山天大畜)	27	☶☳	산뢰이 (山雷頤)	28	☵☴	택풍대과 (澤風大過)
29	☵☷	중수감 (重水坎)	30	☲☷	중화리 (重火離)						

(下經 34卦)

31	☵☶	택산함 (澤山咸)	32	☳☴	뇌풍항 (雷風恒)	33	☰☶	천산돈 (天山遯)	34	☳☰	뇌천대장 (雷天大壯)
35	☲☷	화지진 (火地晉)	36	☷☲	지화명이 (地火明夷)	37	☴☲	풍화가인 (風火家人)	38	☲☵	화택궤 (火澤睽)
39	☵☶	수산건 (水山蹇)	40	☳☵	뇌수해 (雷水解)	41	☶☵	산택손 (山澤損)	42	☴☳	풍뢰익 (風雷益)
43	☵☰	택천쾌 (澤天夬)	44	☰☴	천풍구 (天風姤)	45	☵☶	택지취 (澤地萃)	46	☴☳	지풍승 (地風升)
47	☵☳	택수곤 (澤水困)	48	☵☴	수풍정 (水風井)	49	☵☲	택화혁 (澤火革)	50	☲☳	화풍정 (火風鼎)
51	☳☳	중뢰진 (重雷震)	52	☶☶	중산간 (重山艮)	53	☴☴	풍산점 (風山漸)	54	☳☵	뇌택귀매 (雷澤歸妹)
55	☳☲	뇌화풍 (雷火豐)	56	☲☶	화산려 (火山旅)	57	☴☴	중풍손 (重風巽)	58	☵☵	중택태 (重澤兌)
59	☴☴	풍수환 (風水渙)	60	☵☵	수택절 (水澤節)	61	☴☵	풍택중부 (風澤中孚)	62	☳☳	뇌산소과 (雷山小過)
63	☵☲	수화기재 (水火既濟)	64	☲☵	화수미재 (火水未濟)						

12벽괘진퇴소장표(十二辟卦進退消長表)

復	臨	泰	大壯	夬	乾	姤	遯	否	觀	剝	坤
1陽生	2陽長	3陽長	4陽長	5陽長	6陽成	1陰生	2陰長	3陰長	4陰長	5陰長	6陰成
子月卦	丑月卦	寅月卦	卯月卦	辰月卦	巳月卦	五月卦	六月卦	七月卦	八月卦	九月卦	十月卦

坎爲本 小過 閏月卦 離爲本 中孚 閏月卦

추이표일람(推移表一覽)

일양괘(陽卦)					일음괘(陰卦)				
2←6 3←6 4←6 5←6 剝 復 1→2 1→3 1→4 1→5 師 謙 豫 比					2←6 3←6 4←6 5←6 夬 姤 1→2 1→2 1→4 1→5 同人 履 小畜 大有				
이양괘(陽卦)					이음괘(陰卦)				
2←6 2←5 1←6 1←5 觀 臨 1→5 1→6 2→5 2→6 坎 蒙 屯 頤		2←4 2←3 1←4 1←3 小過 臨 1→3 1→4 2→3 2→4 升 解 明夷 震		5←3 5←4 6←3 6←4 小過 觀 6→4 6→3 5→4 5→3 萃 蹇 晉 艮					
이양괘(陽卦)					이음괘(陰卦)				
2←6 2←5 1←6 1←5 大壯 遯 1→5 1→6 2→5 2→6 離 革 鼎 大過		2←4 2←3 1←4 1←3 中孚 遯 1→3 1→4 2→3 2→4 无妄 家人 訟 巽		5←3 5←4 6←3 6←4 中孚 大壯 6→4 6→3 5→4 5→3 大畜 睽 需 兌					
삼양괘(三陽卦)									
 泰 1→4 1→5 1→6 2→4 2→5 2→6 3→4 3→5 3→6 恒 井 震 賁 既濟 賁 歸妹 節 損									
삼음괘(三陰卦)									
 否 1→4 1→5 1→6 2→4 2→5 2→6 3→4 3→5 3→6 益 噬嗑 隨 渙 未濟 困 漸 旅 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선생의 저서 『주역사전(周易四箋)』)

周易64卦의 象傳 要旨 (上經30卦)

順	卦	卦名	象傳
1		重天乾	自彊不息
2		重地坤	厚德 載物
3		水雷屯	經綸
4		山水蒙	果行 育德
5		水天需	飲食宴樂
6		天水訟	作事謀始
7		地水師	容民畜衆
8		水地比	建萬國 親諸侯
9		風天小畜	懿文德
10		天澤履	辨上下 定民志
11		地天泰	財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
12		天地否	儉德辟難 不可榮以祿
13		天火同人	類族 辨物
14		火天大有	遏惡揚善 順天休命
15		地山謙	裒多益寡 稱物平施
16		雷地豫	作樂崇德 殷薦之上帝 以配祖考
17		澤雷隨	嚮晦入宴息
18		山風蠱	振民 育德
19		地澤臨	教思 无窮 容保民 无疆
20		風地觀	省方觀民 設教
21		火雷噬嗑	明罰勅法
22		山火賁	明庶政 无敢折獄
23		山地剝	厚下 安宅
24		地雷復	至日 閉關 商旅 不行 后不省方
25		天雷无妄	茂對時 育萬物
26		山天大畜	多識前言往行 以畜其德
27		山雷頤	慎言語 節飲食
28		澤風大過	獨立不懼 遯世无悶
29		重水坎	常德行 習教事
30		重火離	繼明 照于四方

周易64卦の 象傳 要旨 (下經34卦)

31		澤山咸	虛受人
32		雷風恒	立不易方
33		天山遯	遠小人 不惡而嚴
34		雷天大壯	非禮弗履
35		火地晉	自昭明德
36		地火明夷	莅衆 用晦而明
37		風火家人	言有物而行有恒
38		火澤睽	同而異
39		水山蹇	反身脩德
40		雷水解	赦過宥罪
41		山澤損	懲忿窒欲
42		風雷益	見善則遷 有過則改
43		澤天夬	施祿及下 居德 則忌
44		天風垢	施命誥四方
45		澤地萃	除戎器 戒不虞
46		地風升	順德 積小以高大
47		澤水困	致命遂志
48		水風井	勞民勸相
49		澤火革	治歷明時
50		火風鼎	正位 凝命
51		重雷震	恐懼脩省
52		重山艮	思不出其位
53		風山漸	居賢德 善俗
54		雷澤歸妹	永終 知敝
55		雷火風	折獄致刑
56		火山旅	明慎用刑 而不留獄
57		重風巽	申命行事
58		重澤兌	朋友講習
59		風水渙	享于帝 立廟
60		水澤節	制數度 議德行
61		風澤中孚	議獄 緩死
62		雷山小過	行過乎恭 喪過乎哀 用過乎儉
63		水火既濟	思患而豫防之
64		火水未濟	慎辨物 居方

